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5년 12월호

리아 후나

패커 사도가 마지막으로
증거함, 10쪽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음, 34쪽

교사 제언: 더 나은 질문, 더 나은 교육, 20쪽

영원한 결혼: 성약 안의 성약, 24쪽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
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
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
니라”

마태복음 13:45~46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구주를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자비롭고 선하심

특집 기사

- 10**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45년간 봉사한 사도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구주를 증거한다.
- 14** 조셉 스미스와 요한계시록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조셉 스미스는 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책 중에서
가장 명백한 책”이라고 했을까?
- 20**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질문을 함
스콧 에이치 크네흐트
복음을 배우고 가르칠 때, 올바른
질문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24**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규정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이 삶에서는 기쁨과 평화요,
다음에 올 세상에서는 영생이다.
- 32**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네스토르 쿠르벨로
에콰도르에 사는 한 회원의 헌신이 그곳
교회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34 평안하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이번 성탄절에는 시간을 내서
구주께서 주시는 확신을 느껴 보자.

교회 본부 기사

- 8**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생명과 사랑의 선물
브래드 얼레드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다시 만날 때까지
참된 성탄절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

표지

앞표지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앞표지 안쪽 사진: 파트리치오 마르토라나/iStock/
Thinkstock. 뒤표지 안쪽 사진: 클레버 텍스.



48

- 44 선교 사업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옴**
브리태니 로마넬로 카스코
나는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믿었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똑같이 해 주시리라는 것 또한 믿었다.

- 48 청년 성인 소개**
독일에서 증인으로서 생활함
유스티나 맥칸드레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부모님께
무엇을
배웠나요?



64

- 50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방법**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 51 인생을 바꾼, 중고품 가게에서의 선물**
키아누 윌리엄스
성탄 절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영원한 가족이 탄생했다.

- 52 새로 온 친구**
매튜 플리턴
매튜는 정원에서 거의 혼자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제사들이 [교회에] 오라는 초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54 그들은 조셉을 알고 있었다**
조셉 스미스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알아본다.

- 56 여러분은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 57 포스터**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 58 질의응답**
저는 청년 회장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 60 젊은 개종자로서 배운 교훈**
외르크 클레빈가트 장로
항상 기도하고 속죄를 매일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늘 자신감 있고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다.

- 64 나의 '패밀리 트리'에 대한 개인 발전 기록부**
라이사 마르콘데스
가족 역사 사업을 함으로써 라이사는 자신이 가족 내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68

- 65 스펜서와 경전**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스펜서는 부모님이 집을 떠나 있었을 때 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 66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베드나 장로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나 장로에게 신권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다.

- 67 경전 인물**
물몬경,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 68 코르도바 가족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이브**
허니 탈리아 카벨 로스노
마리첼로와 그녀의 언니는 성탄절에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을 코르도바 가족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 70 회복 퍼즐**
하이지 폴먼
안나는 초등학교에서 말씀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회복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72 경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에린 샌더슨

- 74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2015년 12월호, 제52권, 제12호

리아호나 12572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재발행장: 토마스 에스 몬스, 헨리 비 아이머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서도 정월화: 라셀 엠 벨스,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스,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 앤더슨

편집자: 조셉 더블유 시타티

고문: 머빈 비 아놀드, 크레이그 에이 카든, 크리스토퍼 콜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운영 책임자: 반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빌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메간 베르호프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웨드윅스, 매투리 플리몬, 로리 폴라,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크리스틴 해링, 샬롯 라카벨, 앤드 레비,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슨 오데카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톨나, 폴 벤덴버그, 머러사 윌슨

편집 인턴: 알리시아 스탠튼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레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벤틀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라,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태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디자인 인턴: 케이레이 홀리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앨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스프 보릿지, 줄리 버넷, 캐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가, 드나스 커비, 지니 제이 님슨, 가일 터테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교회, 캠퍼스 및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와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9호, 제52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g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바스크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모든 권리 보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5 Vol. 39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평안하라”, 34쪽: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서 아기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권고한다. 가족이 함께 이 기사를 읽어 본 후에 경전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주의 탄생에 관한 성경 비디오(Biblevideos.org에서 시청 가능)를 봄으로써 경건의 영을 느껴 본다. 그런 후에 각자 구주의 탄생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일지나 종이를 준비할 수도 있다. 원한다면 가족들에게 생각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크리스마스 비디오, Mormon.org: 여러분의 가족이 올해의 크리스마스 비디오를 사용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크리스마스 다과를 만들어 친구에게 다과와 함께,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는 카드를 줄 수 있다. 가족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계획해서 비디오를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함께 비디오를 보자고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iahona.magazine](https://www.facebook.com/iahona.magazine)을 방문하면 가정의 밤 제언, 일요일 공과 제언,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20

가족 역사, 64

결혼, 24

경전 공부, 65

기도, 41, 42, 60

동정심, 7

물문경, 67

배움, 20

봉사, 4, 39, 41, 56, 58, 68

사랑, 8

선교 사업, 32, 44, 48, 51, 52

성약, 24

성전 사업, 42, 43, 58

성탄절, 4, 8, 34, 38, 39, 40, 41, 42, 43, 50, 51, 68, 72, 74, 80

속죄, 10, 44, 60

순종, 24, 56

신권, 66

신약전서, 14

영생, 24

예수 그리스도, 4, 10, 24, 34, 50, 60, 72

재능, 57

재림, 72

조셉 스미스, 14, 54, 70

지도력, 58

친절, 7, 41, 58

평화, 34

헌신, 32

회복, 70

희생, 8, 32, 39, 40, 43, 56, 60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구주를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성탄 절기가 다시 다가오고 또 새해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고 결심을 한 지가 마치 어제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했던 결심 중에서, 생활 속에서 구주를 위한 시간을 내고 또 그분을 위한 자리를 우리 마음에 만들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까? 그런 결심과 관련해, 이제까지의 성공 여부에 관계 없이 더 잘해 보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탄 절기는 우리 노력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 생활과 우리 가정으로 그리스도를 들이기 위해 의식적이고 결연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주님의 별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에게 경배하러”¹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예수님이 모든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늘 똑같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분은 “나를 따라오라”²고 하셨으며,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³고 하셨습니다. 또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인에게도 “나를 따르라”⁴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잘 듣기만 한다면, “나를 따르라”⁵고 부르시는 권유를 똑같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 그분의 모범을 본받으려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⁶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봉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저는 혼자 되신 연로한 자매님 한 분을 성탄절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주 바쁘고 잘 알려진 의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진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하게 혼자 사는 환자를 찾아가 보라는 속삭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평소 나들이를 별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탄 절기에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몹시 바랍니다. 어느 성탄절에 요양원을 방문해서 연로한 여성 다섯 분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중 가장 연로한 분은 101살이었습니다. 그분은 눈이 멀었지만, 제 음성을 알아들으셨습니다.

“감독님, 올해는 조금 늦게 오셨네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환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내 아들이 날 찾아올 거야.”라는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어느 성탄절에도 그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기에, 저는 과연 올해는 찾아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마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할 시간, 즉 우리 구주께서 보여 주신 모범을 따르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봉사할 시간이 올해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옛적의 여관 주인과는



달리,⁷ 우리의 삶에서 구주를 위한 시간을 낼 기회를, 또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음에 만들 기회를 저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에 담긴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⁸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 즉 우리 구주요 구속주라는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진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영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⁹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우리 생활에서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선조 리하이의 말대로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일]”¹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마태복음 2:2.
2. 마태복음 4:19.
3. 요한복음 1:43.
4. 마태복음 9:9.
5. 교리와 성약 38:22.
6. 교리와 성약 64:34.
7. 누가복음 2:7 참조.
8. 누가복음 2:10~11.
9. 교리와 성약 88:33.
10. 니파이후서 1:15.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몬 스 회장은 “우리 삶과 우리 가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의식적이고 결연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또는 가족 전체가 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 수 있는지를 함께 토론하는 것도 좋다. 그들이 이번 성탄절에 방문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권유할 수도 있다.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마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할 시간이 아직도 올해에 남아 있다.”

성탄 절기에 봉사하는 방법

몬 스 회장님은 시간을 내서 연로한 분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시곤 했는데, 특히 성탄 절기에 그렇게 하셨다. 방문자가 와서 행복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방문자가 오기만을 그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성탄절에는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성탄절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아래에 나와 있다. 이번 절기에는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손길을 내밀 더 많은 방법을 자유롭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의 선교사들과 혼자 사는 연로한 회원에게 보낼 성탄절 카드를 만든다.
- 현지의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 자원봉사를 한다.
- 친구와 이웃에게 물문경을 성탄절 선물로 준다.
- 여러분의 와드 또는 집안에 계신 연로한 분들을 방문한다.
- 이웃에게 전할 선물을 만든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방법에 관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보려면 lds.org/topics/humanitarian-service/help를 찾아본다.

어린이

빛을 따르십시오

예 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동방 박사들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하늘에서 새로이 빛나는 별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을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가져갈 수 있나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이 방문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자비롭고 선하심

구주의 신성한 성품을 특집으로 다루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

“경전에서, 공훈은 문자 그대로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타인에 대한 동정,
연민, 자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¹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동정심과
관련하여 많은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베테스다 못의 다리 저는 사람, 은행
중에 잡혀 온 여자,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 아이로의 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등은 각각 여리고로 가는
길의 재난 당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모두 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테스다 못에서 다리
저는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였고, 죄 지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셨고,
아이로의 죽은 딸에게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셨으며,
무덤의 나사로에게는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항상 무한한 동정심의
가능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 참된
동정심의 살아 있는 모범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시다.”²

보충 성구

시편 145:8; 스가랴 7:9; 베드로전서 3:8;
모사이야서 15:1, 9; 제3니파이 17:5~7

주

1. 경전 안내서, “공훈.”
2. 토마스 에스 몬슨, “동정심이라는 선물”, *리아호나*, 2007년 3월호, 4, 8쪽.
3. 린다 에스 리브즈,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19~120쪽.
4. 린다 에스 리브즈,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18쪽.
5. 린다 에스 리브즈,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20쪽.

생각해 볼 점

여러분의 동정심으로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가?

신앙, 가족, 구제



경전에서

“남편과 저는 17세 된 딸의 침상
옆에 무릎 꿇고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인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안 된다는 응답이었지만, ...
[구주께서] ... 슬픔과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³

“구주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
이야기는 나사로에 관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예수께서 ... 마르다와
그 동생[마리아]와 [그들의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⁴ 나사로가 앓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갈을
보냈지만, 그분이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가 그
발아래 엎드리며 울었다. 흐느껴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는 “예수께서
...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
눈물을 흘리[셨다.]”(요한복음 11:33,
35)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뿐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까지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의
고통이 어떤지 아시고 어떻게
위로하실지 아신다는 점을, 먼저
우리가 직접 느끼고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그것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⁵

생명과 사랑의 선물

브래드 얼레드

어머니의 선물은 우리에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보여 주었다.

에드 삼촌은 언제나 삶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주위에 파급되었다. 불행히도 삼촌은 신장 한쪽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삼촌은 수년 동안 신장 투석을 통해 신장이 멈추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신장 투석은 고통스러웠고, 자주 해야만 했다. 삼촌은 매번 투석을 받고 나면 다음에 받을 때까지 기진맥진해 있었다. 1995년 가을이 되자 삼촌은 모든 활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의사는 새로운 신장을 골라주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한쪽만 있어도 되지만, 에드

삼촌은 수술할 때 따르는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장 한쪽을 기증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까운 몇몇 친구와 식구들이 자신의 신장을 삼촌에게 주어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도, 유일하게 정확히 일치하는 신장을 찾았다. 바로 삼촌의 누나이며 내 어머니인 도티의 신장이었다.

12월 7일, 삼촌의 여러 친구와 가족이 삼촌과 어머니를 위한 금식 기도에 참여했다. 수술을 집행할 의사들은 쌍둥이 형제였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신장을

기증했다는 것이다. 삼촌과 어머니는 이 두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최선을 다한 다음, 머리를 숙이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알고 큰 감명을 받았다.

수술하는 날, 한 의사가 어머니의 신장 하나를 떼어 내고 상처 난 부위를 봉합하는 동안 다른 쌍둥이 형제는 그 기증받은 신장을 삼촌에게 조심스레 이식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삼촌의 몸이 새로운 신장을 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면역 체계에 있는 항체를 억제시켰기 때문에 삼촌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도록 집중치료실에 격리되어야 했으며, 집중치료실에서 나온 후에도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서는 여전히 격리되어야 했다. 그러던 중, 삼촌은 성탄절 이브에 특별 허가를 받아 외조부모의 연례 성탄절 전야 축하 모임에 참석했다.

삼촌은 마스크를 했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에게로 가 어머니를 부둥켜안았다. 삼촌과 어머니가 서로 얼싸안고 있는 동안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두 사람에게서 품어 나오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어머니는 동생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그것은 사랑의 선물이자 희생의 선물이었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17



삼촌이 혼자서 구할 수 없는 선물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삼촌을 보고 있노라니 한 가지 생각, 곧 구주를 직접 대면하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해 주셨다. 오직 거룩한 존재이신 그분만이 공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데, 그토록 큰 희생을 감내하실 수가 있었다. 또한 완전한 존재이신 그분만이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할 자격이 있으셨기에,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율법이 적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에 골몰하면서 나는 구주와 그분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나는 언젠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을 껴안고,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를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직접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선물을 나눔

주님의 사랑에 찬 희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주의 사랑의 선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며, 복음과 이 절기의 기쁨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총관리 역원으로서 54년, 사도로서 45년 동안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특별한 증인” (교리와 성약 107:23)으로 봉사한 패커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겸손하게 전해 왔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2015년 7월 3일에 패커 회장은 자신의 성역 중에 하신 말씀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리아호나에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성탄 절기의 특별한 영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증언과 사랑을 잘 보여 준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사랑합니다. 성탄 절기에는 특별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과 증언은 교회 회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 주님의 종으로서, 십이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사업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주님이요 친구이신 그분에 대해 증언합니다.”¹

저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쉽게 토론하기에는 너무나 성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

그것은 비밀로 가득 찬 것이어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론하기보다는 깊은 존경심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선지자 앨마가 말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많은 자에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다만 사람의 자녀들이 그에게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그들에게 내려 주시는 그의 말씀의 분량을 따라서만 나누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하에 놓여 있느니라.

또 이러므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 그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자, 그에게는 더 큰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이윽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에 이르고 이윽고 이를 전부 알기까지 이르느니라.’(앨마서 12:9~10) ...

이제, 저는 어찌하여 저와 같은 사람이



그분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사악함과 부패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 벌어질 모든 만행, 부도덕, 타락, 부패, 중독, 살인, 고문, 폭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육신이라는 제한도 받지 않고 필멸의 고통도 느끼지 않는 사탄의 가공할 권능 앞에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에서였습니다!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악이 그 고결한 분의 빛 앞에서 쫓겨나 부끄러움으로 숨었던 순간을 어떤 필멸의 존재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악도 그 빛을

성스러운 사도의 직분에 부름받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자격 요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저의 노력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골몰히 생각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된 유일한 자격이라면, 제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가 구주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절정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그의 복음을 가르쳤고,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는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에 대해 저는 증거합니다.”²

그분은 대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에도, 많은 사람이 비이기적인 영웅적 행동으로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신 일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의 범법과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것은 조화와 균형의 속죄였습니다. 그분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자비와 공의가 화해할 수 있었으며, 영원한 율법이 지속될 수 있었고, 필멸의 인간이 구원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중재가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의 젖값이 치러졌습니다. 죽음과 지옥 모두, 회개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인간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그 빛을 따르고 구속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한한 희생에 의해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신앙개조 제3조).’³

위대한 교사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려 노력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향해 경건함을 느끼며 그분이 가르치신 것과 그분이 가르치셨던 방법에 큰 존경심을 갖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려고 소망하는 것은 온당한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분과 같이 되려고 소망하는 것은 온당한 일입니다. 그분은 그냥 교사가 아니라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⁴

알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진리

“필멸의 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주님이 어떻게 속죄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난을 어떻게 치르셨는가보다는 왜 치르셨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요한복음 15:13)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사도들 곁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기꺼이 온 세상의 실수와 죄, 죄책감, 의심,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신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비탄에 빠졌거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통을 능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주님의 고통은 그 전이든 후이든 다른 모든 이들의 고통과는 달랐습니다. 인간에게 부과될 모든 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인류사에서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범법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는 갚아야 할 빚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알려진 모든 죄책감, 슬픔, 고통과 굴욕, 모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고통 등,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인류사에서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범법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시고, 본질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자가 나임이니'(모사이야서 26:23).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

잠시라도 휘청거리거나 길을 잃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 더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곁에는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니파이후서 25:23) 받게 될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게는 이러한 가능성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진리입니다.

저는 용서의 밝은 아침이 올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이 해가 떠오르듯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도 주님도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예레미야 31:34)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사이야서 4:1~3 참조)⁵

저의 간증

"지금까지 살아오고, 가르치고, 봉사하며 그 모든 세월을 보내고, 또한 전 세계 곳곳으로 수백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그 모든 일을 겪어 온 지금, 저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성스러운 경험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 그를 보았[음이라.]'(교리와 성약 76:22~23) 그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⁶

"제 생애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특별한 증언을 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추호도 의심 없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그분이 감리하시고 이 사업을 지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며, 또 그분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⁷ ■

주

1. "Our Witness of the Lord", 1974년 12월 5일 총관리 역원 훈련 모임.
2.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성도의 빛, 1972년 1월호, 10~11쪽.
3.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리아호나, 2008년 3월호, 15쪽.
4. Mine Errand from the Lord: Selections from the Sermons and Writings of Boyd K. Packer (2008), 337.
5. "구주의 이타적이고 거룩한 희생", 리아호나, 2015년 4월호, 37~38쪽.
6. "증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7쪽.
7. 마지막 간증은 패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간증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요한계시록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요한계시록을 둘러싼
모호함을 어느
정도 없애는 데
이바지했으며, 이 책이
우리 시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1세기에 쓰인, 신약전서에서 정경(권위 있는 경전)으로 받아들여진 마지막 책이었다. 몇 세기 후에 일부 기독교학자들은 이 책을 누가 썼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책에 담긴 일부 교리(예컨대 복천년에 관한 가르침, 또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가르침)에 반대했으며, 이 책에서 구약전서에 관해 언급한 부분과 시현을 묘사한 부분은 너무나 생소하고, 또 신약전서의 다른 여러 저술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책의 반박할 수 없는 몇몇 사실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 중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언급하며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다고 했고, 또 그 책을 인정하면서 자기들 글에 광범위하게 인용했다.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 논란이 없었던 다른 몇몇 책의 경우에는 굳이 그런 증거까지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조셉 스미스를 회복의 선지자로 부르신 19세기 초 무렵,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거의 모든 번역본에 포함되었으며 또 널리 읽혔다. 요한의 시현을 묘사한

사진 삽화: 크리스티나 스미스: 빛과 성의 요한, 마크 스페이너, © PROVIDENCE COLLECTION





우리는 계시자 요한이
현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관한 시현을
기록하도록 지명받고
예임되었다는 것을
니파이가 알았음을
조셉 스미스를 통해
안다.(니파이전서
14:19~29 참조)

내용은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해 다른 여러 해석을 낳았으며, 이런 일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조셉 스미스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로서 요한계시록을 조명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일을 했다. 첫째, 요한계시록의 특정 부분을 설명하고 전반적인 전후 관계를 확장했으며, 둘째, 난해한 부분을 쉽게 풀이했다.

설명 및 확장

조셉 스미스가 요한계시록에 관해 설명한 가장 좋은 예는 교리와 성약 77편에 있다. 1832년 3월에 받은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1장에 나오는 특정 구절에 관한 질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지자는 이 설명이 성경 영감역을 번역하고 있을 때 계시되었다고 말했다.(교리와 성약 77편 소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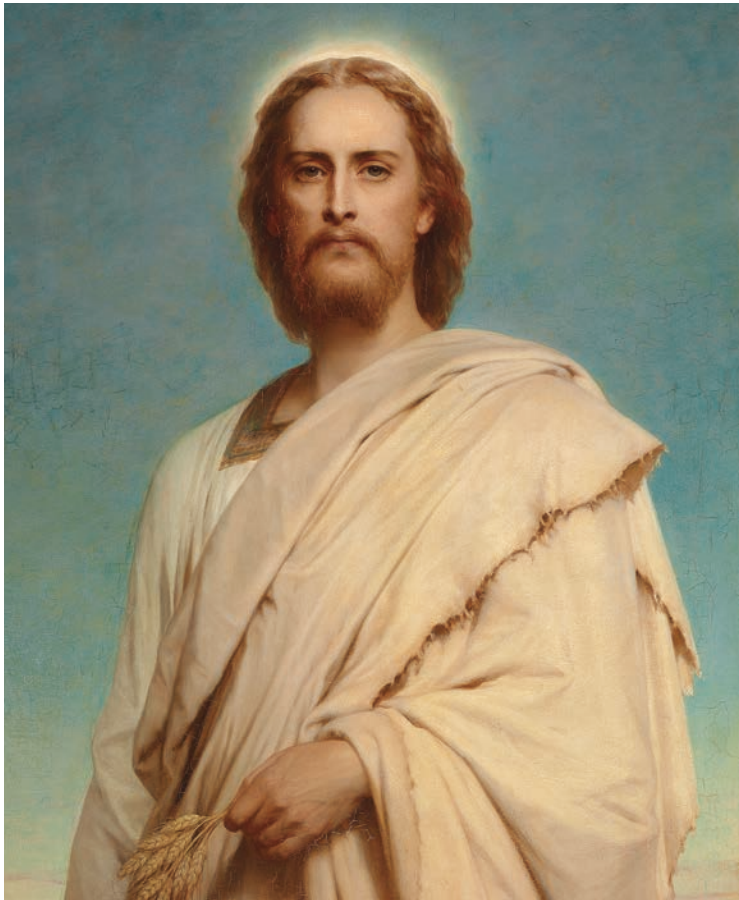
질문은 “이것은 무슨 뜻인지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지요?”와 같이 꽤 직선적이며, 대답 역시 늘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직선적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구하여 받은 대답으로 추측에 근거한 여러 해석이 그 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요한의 시현이 후기의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되었다.

예컨대,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되는, 요한이 묘사한 일곱 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일곱 인은 지구 역사의 주된 일곱 기간을 나타내며, 마지막 두 기간은 우리 시대와 그 이후의 기간을 다루고 있어(교리와 성약 77:6~7 참조), 요한의 시현에서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이 여섯째와 일곱째 인에 할애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는 계속해서 여섯째 인에 나오는 일부 숫자(네 천사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의 중)가 마지막 날의 회복 및 집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77:9~11 참조)

이러한 설명을 담고 있는 계시가 도움을 준 부분은 물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성경 번역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 준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조셉은 번역하는 동안 때로는 영감을 받아 본문의 어구를 더욱 명확하게 바꿨을 뿐만 아니라¹ 다른 성구와의 연관성을 확립해 서로를 보강하도록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도 했다.² 성경과 관련해 조셉 스미스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경전의 여러 책에 나오는 가르침과 예언을 하나로 꿰기 위해 그 책들 사이에 있는 공통적인 실마리를 엮은 것으로서, 요한계시록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이 밖에도, 조셉 스미스는 다른 계시와 번역을 통해 요한계시록이 여러 시대에 걸쳐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개괄적인 시현의 모형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다. 우리는 물몬경과 값진 진주에서 니파이, 야렛의 형제, 모세, 그리고 에녹이 모두 세상의 종말을 비롯해 인류 역사의 개관을 보여 주는 비슷한 시현을 보았다는 것을 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다른 선지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것을 안다. 이를 기록하도록 예임된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이다.(니파이전서 14:25~26 참조) 따라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나온 물몬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요한이 묘사한 내용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조셉 스미스가 요한계시록에서 즐겨 사용하던 인용구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요한계시록 19:10).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천사가 요한에게 한 이 말을 종종 되풀이했다. 이 말씀은 간증의 본질과 아울러 교회와 개인의 삶에서 예언과 계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예를 들면, 조셉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다.

“구원은 계시 없이 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시 없이 성역을 베푸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누구도 선지자가 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에 대한 간증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예언의 영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3:389)

있음을 시사한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런 지식이 추가로 계시되었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거듭되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더 잘 알 수 있다. “종국에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사탄이 넘어지고, 선이 영원토록 악을 이길 것이며, 성도들이 박해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을 쓰러뜨릴 것이다. …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³ 조셉 스미스는 이 밖에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 희망의 초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며, 또 후기에 우리가 주님, 그리고 주님의 사업에 충실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고 강조했다.

난해한 부분을 쉽게 풀이함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3년 4월 8일, 교회의 한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책 중에서 가장 명백한 책입니다.”⁴ 이 발언은 듣는 이들의 경험과는 완전히 상반되었기에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뜻으로 그 말을 했는가?

조셉 스미스는 요한계시록의 난해한 부분을 이 대화 말씀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며 그 모호함을 어느 정도 풀어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아리송한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늘 아리송한 것만은 아니며, 경전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쉽게 풀이했다.

예를 들면, 조셉 스미스는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으면 그에 대해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말씀의 다른 곳에서 보여 주었다. 조셉은 이 책의 첫 석장이 요한의 시대와 “만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요한계시록 1:1)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요한의 시대 이후, 즉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요한계시록 4:1)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⁵ 이 책에 묘사된 이런 시현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좁혀서 보게 되면, 이들 시대의 구분이 어느 정도는 좀 더 명확해진다.

이 밖에도 조셉 스미스는 짐승은 때로는 짐승을 의미할

조셉 스미스 덕분에 요한계시록에 관해 알게 된 몇 가지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추가적인 진리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사탄과
세상에 맞서
승리한다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5~8장

교리와 성약 77:6~7, 12

일곱 인은 일곱 기간을
나타낸다. 마지막 두
개의 인은 우리 시대와
그 이후를 다룬다.

일곱째 인이 열린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고, 악한
자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7:1~8

교리와 성약 77:8~11

네 천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에서 인침을 받은
144,000명의 종은 회복
사업 및 마지막 날의
집합과 관련이 있다.

지구는 깨끗해지고
복천년이 시작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88:89~110 참조)

요한계시록 20:2

니파이전서 22:26

사탄은 복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백성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묶일
것이다.

부활

회복

배도

“땅은 물로 말미암듯
사라[질 것이다].”

(교리와 성약
43:32~33 참조)

요한계시록 20:5

교리와 성약 76:81~85

복천년 이후까지도
부활하지 못할 이들은
별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2:4, 7~9

교리와 성약 29:36~37;
76:25~29

요한의 시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의 지속적인
전쟁을 강조하기 위해
전세에서의 천국 전쟁을
짧게 언급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요한계시록
21:2). 이 구절은 애굽의 성이 돌아온다는 뜻일 수
있다.(모세서 7:63 참조)

요한계시록 20:11~13

교리와 성약 128:6~7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내용이
(지상과 하늘에서)
기록된 책들에는 죽은
자의 구원과 관련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7:5

니파이전서 13:6; 14:10

요한이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파악한 단체는
악마의 교회이다.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및 그분의
교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포함된다. 그
까닭은 두 개의 교회,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와 악마의 교회만이
있기 때문이다.

뿐이라고 가르쳤다. 조셉은 요한이 하늘에서
생물들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요한계시록 4:6
참조), 요한이 본 것은 실제로 ... 하늘에 있는
생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선지자는 요한이
자기 시현에 관해 묘사한 내용이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적어도 몇몇 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것임을 보여 주었다.⁶ 조셉은 또한 그런
상징과 관련된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종류의 형상이나
짐승이나 상징의 시현을 주실 때, 항상 그
시현의 의미에 대한 해석 또는 계시를 주실
책임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시현이나 상징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시나
해석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⁷

모든 모호한 시현에 관해 해석을 아는
것이 경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언어에 있는 비밀이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선행을 이루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앨마서 26:22)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의 난해한 부분을 쉽게
풀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더
중요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 만한
요소들을 제거했다. 물론 요한의 시현은 배도와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악마에 대한 승리,
복천년 동안의 통치, 부활과 최후의 심판 등,
후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찾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현에 묘사된 상징에 관해 특정 해석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책에서 밝혀진 놀라운 빛을
이용한다면, 광범위한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개인적
간증을 갖고 또 후기에 그분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요한계시록 3:21; 21:7 참조) ■

주

1. 예를 들면, 후기 성도 영문판 요한계시록 2:1, 주석 a; 또는 요한계시록 6:14, 주석 a 참조.
2. 예를 들면, 조셉 스미스는 (영문 성경 부록에서) 요한계시록 1:17을 이렇게 고쳤다. “볼지어다 그가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왕국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구름 안에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조셉 스미스가 추가한 낱말(기울임체)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경전상의 다른 가르침과 연결해 준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27(“아버지의 영광”), 유다서 1:14(“수만의 거룩한 자”).
3. Bible Dictionary, “Revelation of John.”
4. History of the Church, 5:342.
5. 조셉 스미스가 알고 있던 바와 같이, 물론 일곱 인 중 첫 다섯 인은 과거의 사건들을 다루지만, 이 다섯 인은 요한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사건들로 귀결되는, 인류 역사의 목적이거나 종점에 관한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6. 이 특별한 예에서, 짐승들은 문자 그대로 각각의 네 짐승을 나타낸다. 반면에 그것들에 대한 요한의 묘사에는 외형보다는 추상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다수의 눈과 날개)가 포함되어 있다.(요한계시록 4:6~8; 교리와 성약 77:4 참조)
7. History of the Church, 5:343.
8. 조셉 스미스는 이 점이 특히 선교사들에게 해당된다고 분명히 느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전파하고자 세상에 나아갈 때, 말하라고 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큰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파하고 외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째 원리를 선포하십시오. 신비한 이야기들은 가만히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과 대상에 대한 시현에 결코 관여하지 마십시오.”(History of the Church, 5:344)



스코트 에이치 크네흐트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질문을 함

질문을 준비하고,
만들고, 묻고,
응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홀 룡하게 공과를 하거나 가족 대화를 이끌어 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활동, 조용히 공부하기, 그리고 그룹으로 공부하기 등은 복음 교사가 정식으로 부름을 받았든, 세미나리 또는 종교 교육원 자원봉사 교사이거나 부모이든 간에, 가르침을 향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이다.

그렇긴 해도 모든 교사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인 두세 기술에는 질문을 잘 활용하는 능력, 즉 질문을 만들고, 묻고, 의미 있는 응답을 끌어 내는 능력이 포함된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은 모든 배움과 가르침의 중심 원리입니다.”¹ 효과적인 교사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가장 효과적인 응답을 구한다.

학습자로서 반에 앉아 잘 준비된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빼어난 가르침의 힘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효과적인 질문을 만들고 묻는 방법은 많은 교사에게 곤혹스럽고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은 모든 교사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 때, 질문을 통해 어떤 종류의 응답을 끌어낼지를 정하도록 노력한다. 어떤 질문들은 특정 형태의 응답, 즉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한 가지 대답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은 수학 시간(“이 사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이나 과학 시간(“물은 몇 도에서 끓는가?”)에 유용한데, 찾을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답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질문은 또한 복음 공부 시간에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사실 파악의 한 방법으로 유용하기도 하나 토론을 이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준비하기 쉬운 까닭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지요?” 또는 “...의 이름이 뭐지요?” 같은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입을 열지 않게 된다. 그들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치가 않아서 추측해서 답하기를 꺼린다. 교사는 이러한 침묵을 질문이 너무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사실은 그 질문이 너무 기본적인가라서 학습자들로부터 빠른 대답 외에는 더 의미 있는 대답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이다.

교실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다양하고 사려 깊은 응답을 하게 하는 질문이 훨씬 더 유용한 질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주제에 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토론을 하는 동안 무엇을 혼란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로나이서 1장은 네 구절로 되어 있는데, 구절마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네 구절을 모두 읽은 다음, “그 구절 중 어느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게 와 닿았죠?”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잠시 시간을 주고 말을 꺼내게 한다.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대답은 거의 다 유용하다. 나는 바로 그 장을 활용하여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한 종류의 질문은 기억이나 단지 사실에 대한 언급만을 요구하는 질문과는 달리, 생각과 느낌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사실을 기억해 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교사는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넓게 말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로나에서 1장과 각 구절에 어떤 강력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야기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생각을 유발하여, 학습자들이 좀 더 토론에 몰입하여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지만 내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지요?”라고 묻는다면, 대체로 침묵과 모른다는 표정을 접하게 될 것이다.

후속 질문을 한다.

복음 교사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질문은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핏 보면 의미 있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하다.” 물론 신앙(그리고 다른 복음 원리들)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런 종류의 질문은 대체로 그 질문만으로는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한다. 그 까닭은 “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또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이 중요했던 때의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와 같은 후속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질문은 좋은 토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질문은 생략하고 바로 그 질문으로 간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토론이 더 잘 진행될 것이다.

질문을 미리 적어 놓는다.

공과를 준비하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하면 매우 도움이 된다. 첫째,

질문을 종이에 적는다. 질문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적어 둔다.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질문을 몇 차례 읽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묻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는지 자문해 본다. 참으로 좋은 질문을 적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크게 말한 후, 반 학생들의 반응을 떠올려 보자 성공적인 토론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던 때가 있었다. 그 질문은 아마 다른 반에서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내 특정한 반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다시 시작했다. 공과 계획을 세우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 적어 놓은 두세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들을 하겠지만, 시발점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법은 가정에서도 통한다. 우리는 질문과 답변이 잘 이루어질 때 가정에서 자발적인 복음 토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자녀에게 좀 더 진지하고 직접적인 무언가를 말해 주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 나는 구체적인 질문을 마련하고, 묻는 연습을 하고, 가능한 답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했을 때 훨씬 일이 잘 진행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질문은 종이에 적어 두지는 않았으나 마음에 품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참으로 좋은 질문, 즉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응답을



하게 하는 질문을 준비했다면, 사람들이 대답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된다. 침묵의 시간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단지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는 피상적인 질문(예컨대, “신앙개조는 몇 조로 되어 있지요?”)에는 빨리 답할 수 있다. 응답을 요구하는 깊은 질문에는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시간이 종종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침묵은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게 한 후,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응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들의 대답에 놀라며 기뻐할 것이다.

경전에 관한 질문을 한다.

여러분이 효과적인 질문을 만들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경전에 대해 훌륭한 질문을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경전 읽기에 착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개인적인 영감을 받도록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전의 각 장과 구절들을 읽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을 즐기며 교리와 진리로 고양된다. 공과를 준비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으로는 경전을 읽고 질문을 통해 경전을 탐구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경전을 이해하도록 가장 잘 도울 방법을 정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끌어낸다. 여기 한 예가 있다. 교리와 성약 18편 10절에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는 잘 알려지고 우리 영을 고양시켜 주는

구절이 있다. 나는 그 원리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만 영감을 준다면 반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다음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겠는가? “그럼 영혼의 가치는 무엇인가? 영혼의 가치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딸 아이 하나가 바로 그런 질문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토론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영혼의 가치는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지불한 대가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을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아들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로써 각 영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게 되었다. 그 문장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저녁 식탁에서 나는 대화의 예는 다른 가르치는 환경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질문을 하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동안 경전에 대해 실질적인 질문을 해 본다. 호기심을 가득 품고 깊게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여러분이 경전을 면밀히 조사할지라도 경전은 언제나 참될 것이다. 경전을 연구하면서 경전에 대해 질문을 더 잘할수록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훌륭한 질문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능력을 계속 계발한다.

훌륭한 교사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습득하기 어려운 은사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가르치는 능력은 영의 은사 중의 하나이다.(모로나이서 10:9~10 참조)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기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일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은사는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은사이다. 따라서 훌륭한 교사가 하는 많은 부분은 여러분도 공부와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법을 아는 것은 그러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여러분이 이를 행할 능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일을 하는 능력도 커질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The Lord Will Multiply the Harvest”(1998년 2월 6일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들에게 한 위성 방송 말씀), 5~6쪽.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계획의 일부로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제정하시어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칠십인 및 교회
협의부 집행 책임자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

편집 후기: 이 기사는 십이사도 정원회에게서 받은 특별한 임무의 일환으로 내쉬 장로가 집필했음.

인생의 목적

모든 사람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¹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² 모든 은사 중 이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³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삶의 목적을 알려 주며, 만일 우리가 이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영원한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2015년 10월 리아호나에서 구원의 계획과 필멸의 삶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계획의 일부로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제정하셔서 자녀들이 당신의 면전으로 돌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요.”⁵

주님께서 자주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 칭하시는 이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함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의식과 성약을 포함합니다.⁶ 회복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 지상에 주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후기 성도들은 이 성약의 중요성과 그 성약을 맺은 이들이 받게 될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성도들이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기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며 성약 중 하나인 영원한 결혼이 어떻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의미와 목적

복음의 관점에서 성약이란, 신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집행한 신권 의식을 받고, 그에 따른 성약의 조건을 따르겠다고 동의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계약 또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집니다.⁷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모든 복음 성약과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모든 복음
성약과 임무를 합한
것”입니다.

임무를 합한 것”이며,⁸ 이는 고대에 주어졌고⁹ 이 후기에 다시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리와 성약 66편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옛 시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던 것같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내보낸 나의 영원한 성약 곧 나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너는 복이 있도다.”¹⁰ 이 성약은 마지막 경륜의 시기에 회복된 것이므로 “새로운” 것이며, 또한 영겁에 걸쳐 지속되므로¹¹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전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과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역자 주: 영문에서는 부정관사 ‘a’와 정관사 ‘the’로 구분하고 있음. 한국어에서 관사는 뜻이 거의 없어 편의상 ‘a’는 ‘하나의’로, ‘the’는 ‘포괄적인 의미’ 또는 생략하여 표기함.) 예를 들어, 주님은 교리와 성약 22편 1절에서 침례가 창세부터 있어 왔던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에서는 영원한 결혼도 또한 “하나의”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나의”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을 말씀하실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된 여러 성약 중에서 구체적인 어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포괄적인 의미의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을 의미하며, 승영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식과 성약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침례나 영원한 결혼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그 자체라기보다는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입니다.

이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적합한 신권 권세를 통해 행해진 복음 의식을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었으며¹², 그 의식에 관련된 신성한 성약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위대하고도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에는 죄에 대한 용서¹³, 경건의 능력¹⁴, 또한 성신의 동반¹⁵이 포함되며, 이는 또한 그로 인한 인도와 영감, 평안, 화평, 희망 그리고 성결케 되는 [축복을] 수반합니다¹⁶.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사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삶인 영생입니다!¹⁷ 이 은사는 복음의 모든 의식을 받고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에 속하여 그 성약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¹⁸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 은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느니라].”¹⁹ 실로 그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 ...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을 상속 [받으]지니라”²⁰ 주님께서 또한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²¹라고 강조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고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1)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고, (2) 현세와 영원무궁토록 경건의 능력을 향유하며,²² (3) 승영하게 되고, (4) 영원한 결혼과 증식의 기쁨을 얻으며 (5)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쌓여 영생의 은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 포함된 각각의 성약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 세워진 그분의 율법에 따라야만 이 훌륭한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나니, 그 충만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정죄 받으리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노라.”²³ 주께서는 또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²⁴ 교리와 성약의 같은 편에서 주님께서 이 점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²⁵

주께서 충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 사항은, 새로고도 영원한 성약에 포함되는 모든 의식과 성약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침례 의식을 받지

위대하고 영원한
축복이 복음 의식을
받는 이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않고 그 성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죄받게 되며, 발전할 수 없고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 의식을 받지 않고 그와 연관된 성약을 지키지 않으며, 어떠한 복음 의식도 받기를 거부하고 그와 관련된 성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승영에 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정죄를 받게 되며, 이는 우리의 발전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복음의 모든 의식을 받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성약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삶에서 따르기로 한 성약의 조건들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모범을 따르고, (2) 그분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며, (3) 구원 사업의 일부로서, 비록 개인의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4) 주님의 사업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복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은 오직 신권의 권세로 행해진 구체적인 의식들을 따름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권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와 관련한 성약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이 엔진이듯이, 우리가 받은 의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성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의식과 그에 따른 성약을 얼마나 충실하고 사려 깊게 지키는가에 따라 경건의 능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²⁶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²⁷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서 결혼의 위치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또한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 받을 수 없음이니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법한 신권 권세에 의해 행해진²⁸ 영원한 결혼의 성약²⁹을 의미하며, 이 결혼이 [포괄적인 의미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충만한 복음)의 중심이자 필수적인 부분임을 뜻합니다.³⁰ 주께서는 이 성약을 거부한 이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언급하심으로써 영원한 결혼 성약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³¹

일부 교회 회원들을 포함해, 어떤 사람들은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영원한 세상에서 승영을 얻기 위해 복수결혼이 승영의 필수 요소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계시에 어긋납니다. 주께서는 교리와 성약 131편과 132편의 기록에서, 영원한 결혼의 율법을 알려 주시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인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2:4~7, 15~25 참조). 주께서는 영원한

결혼의 율법이 일부일처 결혼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적법한 신권 권세에 의해 집행된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맺은 충실한 남자와 여자는 승영의 축복을 받게 되며 이 축복은 그 [결혼의] 형태가 복수결혼이어야 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음을 명백히 하셨습니다.³²

교리와 성약 132편 19절은 일부일처를 행하고 신권 권세에 의해 인봉받고 성약을 따르는 부부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조건이나 요구 사항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인봉되고 그에 따른 성약에 충실한 남성과 여성은 누구나 승영을 얻게 됩니다.³³ 이 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과거 교회에서 시행된 것은 영원한 결혼의 교리와 일치합니다.³⁴ 일부일처 결혼을 한 부부를 영원토록 인봉하는 의식에는 성약과 축복이 포함되며, 과거에 행해진 허가된 복수결혼을 위한 성약과 축복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이생에서 인봉될 기회가 없었던 충실한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은 신권의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 삶 이후에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똑같은 성약과 축복이 주어집니다.³⁵

주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영원한 결혼의 성약과 율법에 대해 계시하신 뒤,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가르침을 통해 의로운 남성은 영원한 결혼의 성약 안에서 한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으나, 이는 오직 주께서 명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경우에 한하여, 그분께서 적합하게 성임하시고 그와 관련된 신권 열쇠를 부여하신 선지자를 통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³⁶ 주님은 복수결혼을 행하라는 명하심과 그 승인을 아브라함과 다른 고대 선지자들에게 주셨고,³⁷ 이를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도 주셨습니다. “나는 너 나의 종 조셉에게 한 임무를 지명하였고, 만물을 회복하노라.”³⁸

수년이 지난 후, 윌포드 우드립 회장님(1807~1898)께서는 1890년에 성명서³⁹를 발표하셨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교회의 회원들이 복수결혼, 즉 두 명 이상의 살아 있는 배우자와 인봉되는 것에 관한 승인과 명하심을

“해의 왕국의 결혼은
장차 올 세상에서
충만한 영광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폐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복수결혼의 시행은 끝났으며, 이는 교회의 어떤 회원도 두 명 이상의 살아 있는 배우자와 인봉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선언문이 사망한 아내와 인봉되어 있는 충실한 남성과 현재 살아 있는 배우자와의 인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교리는 구주께서 적합하게 성임하신 대표자, 즉 교회의 선지자인 교회 회장을 통해 허락되고 발표된 경우 외에는 일부일처제야말로 주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표준이라는 계시와 일맥 상통합니다.⁴⁰

“복수결혼과 해의 왕국의 결혼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광의 충만함에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찰스 더블유 펜로즈(1832~1925) 회장은 교회의 제1 회장단에게 위임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시에 설명되어 있듯, 해의 왕국의 결혼은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복수결혼도 필수적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⁴¹



1993년에 제일 회장단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이며, 일부다처나 복수결혼은 이와 별개의 뜻입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일부일처 결혼은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율법에 따라 이 교회의 성전에서 엄숙히 거행되며, 이것이 바로 해의 왕국의 결혼입니다.”⁴²

이 선언에 부연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수결혼은 구원이나 승영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니파이와 그의 백성들은 두 명 이상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거부당했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줄곧 베풀셨던 영원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은 승영에 관한 교리의 전모를 계시로 요약해 주셨으며, 승영은 곧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32:1~28) 그 후에 그분은 복수결혼은 교회 회장의 승인에 의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명백한 단서와 함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조건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생에서는
기쁨과 평화를, 다음
생에서는 영생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복수결혼에 관한 원칙을 더해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2:7, 29~66.)”⁴³

오늘날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복수결혼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며, 이를 행하는 개인은 교회에 가입할 수 없고, 회원인 경우, 더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명하시거나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일처제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임을 명백히 합니다. 교회는 복수결혼이 승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론

현세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받들고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현세]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귀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는 것을 압니다.⁴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위대한 목적과, 이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서 중심이 됩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⁴⁵이며 충실한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 영광스러운 성약은 “사람의 영혼에 맞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⁴⁶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조건을 지키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생에서는 기쁨과 화평을,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영생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⁴⁷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또한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렘플릿, 2007), 1 참조.
2. 로버트 디 헤일즈, “구원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는 지식이 담긴 성스러운 보물,” *리아호나*, 2015년 10월 32~39 참조.
3. 교리와 성약 14:7 참조.
4. 로버트 디 헤일즈, “구원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는 지식이 담긴 성스러운 보물,” 32~39 참조.
5. 교리와 성약 1:17, 22.
6. 교리와 성약 66:2.
7. 경전 안내서, “성약” 참조.
8.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1954~1956), 제1권 150쪽.
9. 예레미야 32:40 참조; 교리와 성약 22:1.
10. 강조체 추가; 또한 교리와 성약 39:11; 45:9; 49:9; 88:131, 133; 101:39 참조.
11. 교리와 성약 132:7 참조.
12.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1876~1972)은 이렇게 가르쳤다. “약속의 성령이란 침례나 확인이나 임명이나 결혼 등 모든 의식에 승인 도장을 찍는 성신입니다. 여기에서 약속이란 우리가 충실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침례나, 성임이나 결혼이나, 그 밖의 어떤 것이든 성약을 깨뜨리면 영은 도장으로 찍은 승인을 취소하게 되며, [그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의식은 충실을 전제로 한 보상의 약속과 함께 인봉됩니다. 성약이 깨지면 성령은 도장으로 찍은 승인을 취소합니다.”(*구원의 교리*, 1:45; 또한 교리와 성약 76:52~53; 132:7 참조)
13. 사도행전 2:38; 니파이후서 31:17; 모로나이서 8:25 참조.
14. 교리와 성약 84:19~21; 또한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15. 요한복음 14:26; 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16. 니파이후서 32:5; 제3니파이 27:20; 모로나이서 8:26; 교리와 성약 11:13; 모세서 6:59~61 참조.
17. “영생이란 하나님의 삶이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Harold B. Lee, in Conference Report, Oct. 1956, 61)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결혼한 부부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생이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삶이며, 또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Joseph Fielding Smith,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4:197)
18. 교리와 성약 14:7 참조.
19. 교리와 성약 132:6.
20. 교리와 성약 132:19.
21. 교리와 성약 132:19~20.
22. 교리와 성약 84:19~21 참조.
23. 교리와 성약 132:6.

24. 교리와 성약 132:5.
25. 교리와 성약 132:21.
26. 교리와 성약 84:20~21.
27.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28. 교리와 성약 132:7, 18 참조.
29. 교리와 성약 132:4, 15 참조.
30. 교리와 성약 132:6~7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66:2 참조.
31. 이 성약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반대로, 이생에서 영원한 결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다음 생에서 영원한 결혼의 기회가 주어진다. 밀의 주 35 참조.
32. 교리와 성약 132:15~25 참조.
33. 영원을 위해 인봉되고 관련된 성약을 지키는 일부일처 부부가 승영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언의 추가적 예시는 교리와 성약 131편을 참조한다.
34. 복음 주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topics.lds.org 참조.
35.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깥 말한다면, 만일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할 기회는 없었지만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살았다면, 이런 기회를 얻은 다른 남녀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 받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1년] 130쪽)
36. 교리와 성약 132:34~35; 37~39 참조.
37. 교리와 성약 132:34~39 참조.
38. 교리와 성약 132:40.
39. 공식선언 1 참조.
40. 야곱서 2:27~30 참조. 구주께서 복수결혼의 실행을 명하시거나 허락하시는 이유가 전부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리와 성약 132편에서 주님은 그중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1)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2) “변성하여 땅에서 충만하기 위해”(교리와 성약 132:63; 또한 34절 참조) 왜 주님께서 때때로 복수결혼을 명하시는지 그 이유가 가장 간결히 나타난 부분은 아마도 야곱서 2장 30절일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려 할진대,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명할 것임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러한 것에 귀 기울이지니라.” 또한 복음 주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topics.lds.org 참조.
41. Charles W. Penrose, “Peculiar Questions Briefly Answered,” *Improvement Era*, Sept. 1912, 1042; 강조체 추가.
42. 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75), 5:329.
43.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578~79; 강조체 추가.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1873~1939) 장로님의 말씀 참조. “영원한 증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후기 성도들은 결혼 성약의 영원성이 한 여성과 남성이 현세와 영원 무궁토록 인봉됨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교리를 혼동하여 그것이 두 명 이상의 여성과 인봉되어야 한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두 명 이상의 아내와 인봉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신권의 권능과 약속의 성령의 승인으로 인봉되고 그에 따른 성약을 지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전에 이미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지원한 자들로서(성약을 맺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 그들 스스로가 무한하고 영원한 증식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The Three Degrees of Glory: A Discourse by Melvin J. Ballard*, Sept. 22, 1922, 10; 강조체 추가)
44. 교리와 성약 130:2.
45. 니파이후서 31:20.
46. 이터서 12:4.
47. 교리와 성약 59:23 참조.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네스토르 쿠르벨로

교회 역사 고문, 남아메리카 남 지역

비르힐리오 시마론 살라자르는 자신이 태어난 에콰도르 북부에 있는 차치 마을의 지도자였다. 차치는 현재까지도 마을 회의와 추장 및 판사가 있는 자기들만의 뚜렷한 생활 방식과 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지도자 역할은 보통 한 집안이 대를 이어 계승하는 명예직으로서 공동체로부터 받는 존중과 존경에 깊은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직책을 존중한다는 것은 마을을 잘 보살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신뢰를 뜻했다.

그러나 비르힐리오 시마론의 인생 계획은 아들 월슨이 물문경 몇 권과 새로운 종교에 대한 굳건한 간증을 갖고, 퀴닌데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1996년에 송두리째 바뀌었다. 진리를 발견한 이의 신앙과 열정으로 뭉친 월슨은 복음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했으며, 가족은 얼마 되지 않아 카난데 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시마론 가족이 차치의 친구 및 이웃들과 복음을 나누자 심각한 분란이 확산되었다. 일부 차치족은 비르힐리오 시마론이 종교 때문에 이교도가 되었다고 느꼈으며, 그를 폭행하려고까지 했다. 추장인 그가 종족을 분열시킬지도 모르는, 새로운 종교에 참여하면

에콰도르 과야카나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비르힐리오 시마론의 공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간증에 충실하고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점을 염려한 그들은 비르힐리오를 마을 회의에 넘겨 재판을 받게 했다. 그 재판은 비르힐리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였다.

월슨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마을 회의는 한목소리로



시마론 가족의 선교 사업으로 1999년 5월에 60명이 카난데 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아버님께 말하더군요.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포기한다면 계속 추장 직을 맡게 될 것이요, 반드시 그 약속[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복해야 하오.’ 아버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하면, 반복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차치족을 분열시켰다고 생각하신다면, 오 동족이여, 부디 제 직을 맡을 다른 사람을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런 후 저는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회의는 5분 이상이나 완전한 침묵에 잠기더군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가 말했죠. ‘그렇다면 추장, 물러나시오.’ 아버님은 천천히 일어나 마을 회의를 떠나셨으며, 어머니와 누이,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마론 형제가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 가족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닥쳤다. 한때는 그 가족을 존경했던 여러 사람에게서 멸시를 당하자, 가족은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신앙에 매달렸으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스테이크 회장인 오마르 인트리아고 세자르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의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야카나 지부는 비르힐리오 시마론과 그 아들 윌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비르힐리오의 신앙과 힘, 그리고 간증 덕분이었습니다.”

시마론 가족의 노력은 불과 몇 년 만에 큰 열매를 맺었으며, 대규모 침례식이 열린 1999년 5월 30일은 과야카나의 경축일이 되었다. 인트리아고 회장은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선교부

회장인 로베르토 가르시아 회장님과 함께 도착해 카난데강의 모래사장에서 두 선교사가 60명에게 침례를 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후 가르시아 회장이 한쪽에서, 또 저는 다른 한쪽에서 침례받은 이들을 모두 교회 회원으로 확인했죠. 그것은 제 생애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특권이었습니다.”

비르힐리오의 자신의 간증에 충실하고자 추장 직책을 포기했으나, 다음 세대에 다른 유산, 곧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세우고 이들을 섬기는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는 윌슨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과야카나로 귀환해 아내 루스와 결혼해 자녀를 두는 것도 보았다. 몇 년 후, 비르힐리오의 교회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내 마리아 후아나 아파는 아들이 2014년에 과야카나 지부 회장으로 부름받아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윌슨은 그의 부친이 늘 물려주고자 했던 유산을 잘 안다. 그는 말한다. “제 조상은 언제나 추장이자 군대의 우두머리요 강한 용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조상의 뿌리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힘은 이제 교회 회원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병이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위: (왼쪽에 보이는 지부 회원들과 함께한) 과야카나 지부의 차세대 지도자 루스와 윌슨 시마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평안하라

이 성탄 절기에 시간을 내서 잠시 조용히 앉아 구주의 영으로
위안받으며,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이 바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합당한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 기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과 와드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봉사와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용기가 솟구칩니다. 그것은 성별된,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것을 가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시어 존귀하게 받아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제3니파이 11:7;
또한 마태복음 3:17; 마가복음 1:11; 누가복음 9:35; 교리와 성약 93:15; 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라고 언급하신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칭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칭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또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고, 여러분이 바치는 것을 받아들이시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하시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성탄 절기에 여러분이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딸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위치를 앞으로써 여러분이
큰 위안을 받고 안심이 되며, 그분께 인정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

“슬픔의 짐을 지셨으며
질고를 아시는 그분께서는
근심하는 모든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며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소중한
선물”,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5쪽.

구주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후에 뒤따른 사건들을 대략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분의 탄생은 그분이 우리를 더 잘
구원할 수 있도록 고초를 겪으며 경험하신
일들로 인해 한없이 중요한데,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과 부활로 귀결됩니다.(앨마서 7:11~12 참조)
그렇지만 그분의 사명에는 아름다운 봉사와
기적으로 점철된 성역,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신
위로, 그리고 비탄해하는 자에게 주신 또 지금도
주시는 기쁨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자, 그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두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끝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요한계시록 7:16~17; 또한 21:4
참조).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위대한 복천년과
그 후에 오게 될 그리스도의 해의 영광의 통치
시대에 일어날 일과 이루어질 상태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이맘때는 단지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거나 마음에 두기보다는 그 어린
아기만 생각하십시오. 조용하고 평안한 순간을
택해 그분 생애의 시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하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만,
그분께서는 지상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느긋한 자세로 편안하게 마음속에 이 어린

아기를 그려 볼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생애나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날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4)라고 전하는 소식에 온
하늘이 기뻐했던,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평온한
순간을 되새길 평화스러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영으로 위안을 받으십시오.

몇 년 전에 저는 남아프리카 영국 성공회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 신부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남아프리카에서
인종 차별 정책 후 일어난 화해에 관해 딸과
함께 저술한 책이 막 출간된 때였습니다.¹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이 있다는 것이 그 책에 담긴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인터뷰 도중에 진행자는 투투 신부에게
예리하고 영감 어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투투 신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더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초년에 기도할 때는 온갖 요구 사항과
걱정거리를 품고 기도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칭 “일종의 쇼핑 목록”을 갖고 하나님께

미켈란젤로, *피에타*와 작. 소경을 고치는 그리스도에서 온 안 마를 링겔링 미
솔란 제임스, *오른쪽: 달 하인리히 뮐러의 그림, 왼쪽: 거룩한 영*.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전하는
소식에 온 하늘이
기뻐했던,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평온한
순간을 되새길
평화스러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난로 앞에 앉아 있을 때처럼 그저 불 앞에 있기만 하면 되지요. 똑똑해야 하거나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이 여러분을 덥혀 주니까요.”²

이 말은 멋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앉아 있기만 하면 겨울 난로처럼 그분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완벽해져야 한다거나,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어떤 일에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탄 절기에 시간을 내서 잠시 조용히 앉아 구주의 영으로 위안받으며,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이 바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합당한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앉아 그 어린 아기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강화되어 나중에 닥칠 모든 일을 잘 대비하십시오. 그 순간이 휴식과 기분 전환과 재확신, 그리고 재충전의 순간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 삶과 모든 인류의 삶, 그리고 모든 존재의 목적에서 중심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그런 축복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 절기뿐 아니라 늘 바치고 계시는 것들을 통해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Desmond Tutu and Mpho Tutu, *Made for Goodness: And Why This Makes All the Difference* (2011).
2. Desmond Tutu, “Desmond Tutu, Insisting We Are ‘Made for Goodness’”(2010년 3월 11일 러네이 몬태그네가 진행한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인터뷰), npr.org에서.

성전으로 달려가며

19 99년 12월, 우리는 스위스 베른 성전으로 가는 연례 크리스마스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 직후에 시작해서 특별한 전통이 된 이 여행은 우리가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한 방법이다.

우리는 성전에서 차로 약 8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출발하기에 앞서 날씨가 좋지 않았다. 세찬 바람으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고 얼음으로 덮인 길로 인해 여행이 위험하게 여겨졌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성전에 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왜 이토록 많은 장애와 맞닥트려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감을 느꼈다. 그분께서 우리 길을 열어 주시지 않을까?

남편 안토니오와 나는 아이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응답하시지 않는 한, 다음 날 베른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정말 길을 통과할 수 없다면, 돌아올 거요.” 안토니오가 기도를 마친 후 말했다.

나는 우리 결정이 옳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걱정에 찬 나머지 다시 기도하길 원했다. 남편은 우리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다정스럽고도 참을성 있게 내 곁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겨우 동이 틀 무렵에 출발했는데 어두운 구름이 우리 위에 머물고 있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산 근처에서 파란 하늘을 조금 볼 수 있었다. 가는 햇살이 구름을 뚫고

비치고 있었다.

그 한 가닥의 햇빛이 내 흔들리는 신앙을 강하게 해 주었다. 기적처럼 해가 나타났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안개도, 얼음도, 바람도 없었다. 청명하고 유별나게 따뜻한 겨울날일 뿐이었다.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신 것 같았다.

베른에 도착하자 함박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머무는 내내 계속 눈이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성전으로 향했을 때, 폭풍은 심한 눈보라로 바뀌었다. 나는 잠시 두려웠지만, 성전으로 가는 인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렇게 해야만



성탄절의 기적

해. 세상이 여러 문제로 우리에게 아우성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찾을 수 있는 평안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해.”

우리는 그 성탄절 절기에 성전에서 훌륭한 시간을 보냈지만, 집으로 돌아갈 길이 걱정되었다. 계속해서 눈이 내렸고 막내아들은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우리가 출발하는 날 기적처럼 눈이 멈췄고, 아들의 열도 신권 축복을 받은 후 내려갔다.

성전의 평안이 우리를 지탱해 주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14)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안토넬라 트레비산 우딘, 이탈리아

19 68년 가을에 감독님은 우리 부모님에게 프로보 유타 템플 건축 기금을 내기로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늘날에는 와드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보통 그렇게 했었다. 아버지는 미국 돈으로 1,000 달러를 내기로 약속하셨다. 그것은 그다지 많은 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매우 큰 돈이었다. 아버지는 대학을 다니는 아들, 선교 사업을 나가 있는 아들, 그리고 집에 있는 다섯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셨다.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하기 위해 우리를 앉혀 놓고 성전을 위해 1,000 달러를 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을 때, 내가 ‘차라리 1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하지시지 그랬어요. 어차피 둘 다 못 낼 액수니까요.’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액수를 내기로 약속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돈을 모으기 위해 4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1)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기하고, 그 돈을 기부했다. 2) 누나와 나는 아이들을 돌봐 번 돈을 보태기로 했다. 3) 내 동생은 잡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다. 4) 가족 모두가 근처의 농장에서 매일 몇 주일 동안 사과를 따고,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우리는 신발 상자를 선물처럼 포장해 돈을 모았는데, 거기에는 성전 사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붙였으며, 작은 탁자 위에 그 상자를 놔뒀다. 건축 기금이 늘어나자 우리의 기대감도 더욱 커져 갔다. 우리의 관심도 우리가 받고 싶어 하던 선물에서 구주를

위한 선물로 바뀌었다.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 바로 그분의 목숨을 주심에 정말 감사했다. 너무나 감사했기에 나도 무언가 그분께 돌려드리고 싶었다.

사과를 따는 것이 돈을 모으는, 가장 힘들면서도 만족스러운 방법이었다.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지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우리는 강화되었으며 보람을 느꼈다. 우리는 “단합과 … 사랑 가운데 … 함께 맺어”지기 시작했다.(모사이아서 18:2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나는 기금 상자를 엿보곤 했지만, 언제나 실망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 기금은 목표했던 금액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물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느꼈다. 우리의 희생이 정말 작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주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을 모았으며, 모두 기부했다고 발표하셨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금액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모았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약속했던 금액을 다 모은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진정한 기적은 받는 대신 줌으로써 구주께 더욱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내가 받았던 어떠한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칠 년 후에 나는 프로보 성전의 재단에서 무릎을 꿇고 현세와 영원을 위해 남편에게 인봉되었을 때 그 선물을 돌려받았다. ■

존 버튼 스톱, 미국 캘리포니아

다 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성전으로 향했을 때, 폭풍은 심한 눈보라로 바뀌었다.

상자를 열어 보니 그
안에는 성탄절 무늬
직물로 손수 만든 앞치마가
들어 있었다.



희생의 앞치마

몇 해 전에 나는 성탄절을 한껏
즐기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남편 앤디는 감기가 악화되더니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은 뒤에
급격히 폐 손상으로 이어져서 응급
수술과 식도 재건술을 받았고, “만약을
대비해” 조직 검사까지 받았다. 수술은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일주일 전에
이뤄졌다.

성탄절 몇 주 전에 나는 이웃집에
사는 제네를 방문했다. 그녀는 우리 집의
성탄절 준비가 다 되었는지 내게 물었다.
생각했던 만큼은 준비했다고 겨우
대답했다. 나는 성탄절 직전에 할머니와
함께 성탄절 쿠키를 늘 구워 왔고, 또
우리 딸아이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고
싶지만, 아마도 이번엔 그럴 겨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에 나는 성탄절 트리 옆에
있는 폭신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딸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앤디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 보니 제네가 상자 세
개를 들고 문 앞 계단에 서 있었고, 그

뒤로 눈송이가 내리고
있었다.

“어서 들어와요.” 내가 놀랐다는
것을 분명히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하며
말했다.

“들어가고 싶지만 집에 일이
있어서요.” 그녀가 말했다. “이 집 여자
아이들 선물이에요.”

제네는 선물 상자를 내게 건네주었다.

“앞치마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밤에야 간신히
끝냈어요.”

놀람과 숙연한 마음으로 나는
고맙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
껴안았고, 나는 그녀가 집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시 의자에 앉으면서 나는 상자를
두른 하얀 색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열어 보니 그 안에는 성탄절 무늬 직물로
손수 만든 앞치마가 들어 있었다.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솔기를
느끼면서 제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겨우 한 살이 지난 쌍둥이를
포함해 어린 아이가 넷이나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를 가르쳤고, 와드에서도
바쁘고 중요한 부름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언제 앞치마를 만들
시간이 있었을까를 애써 생각해 보았지만
곧 그럴 시간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시간을 짜냈던 것이다.

제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의 팔”(교리와
성약 6:20)에 안겨져 느꼈던 커다란
온정과 위안이었다.

우리가 그 앞치마를 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우리 딸아이들은
오래전에 그 앞치마보다 더 커 버렸지만,
나는 그 앞치마를 주방 창고 벽에
달린 옷걸이에 걸어서 그보다 나중에
장만한 앞치마 뒤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
제네의 선물을 볼 때마다 나는 그날 밤
내가 느꼈던 위안과 사랑을 떠올린다.
그 앞치마들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즉 계시를 받기에 합당하고 기꺼이
봉사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 상기시켜 준다. ■

캔디스 에이 그로버, 미국 아이다호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성급하게 판 참호 안에 앉아서 모래 너머로 북쪽을 바라보았다. 이라크가 있는 곳이었다. 테저트 실드 작전 중인 12월 24일이었고, 나는 그날 밤 자정에 시작하는 보초 근무에 뽑혔다.

부대 내에서는 내가 유일한 후기 성도였고, 그래서인지 크리스마스 기간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8월부터 주둔해 있었고, 지금은 춥고 별이 가득한 밤의 크리스마스였다. 부대는 모두 잠들어 조용했고, 나는 푸른 회색빛의 사막에서 혼자 생각할 몇 시간이 있었다.

나는 미국 조지아 주에 있는 아내와 아들 생각을 하며 트리와 선물과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등의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또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날 밤이 얼마나 어두웠을지, 또 주변을 환하게 밝혀 줄 달빛이 있었을지, 아니면 별빛밖에 없었을지 궁금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의 풍경은 내가 보고 있던 것과 비슷했을 것 같았다. 아무 축제도 없이 그저 캄캄하고 조용한 밤이었을 것이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얼마 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밤에 홀연히 나타난 별에 이끌려 왔다고

쓰여 있다.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베들레헴의 동쪽에 있다는 사실과, 그 당시에 지성의 중심지 중 하나가 바그다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박사들이 내가 지금 있는 곳과 비슷한 지역에서 온 것은 아니었을까? 어떤 별이 빛났을까? 그 별이 아직도 하늘에서 빛나고 있을까? 내가 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내면으로부터 따뜻함을 느꼈다. 내가 동방 박사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는지와, 그 별이 아직도 하늘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동방 박사들과 같은 지식, 즉

베들레헴에서 왕 중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크리스마스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동방 박사, 선지자, 또는 사막에 있는 참호 속의 외로운 병사와 같이 주님을 찾으려 했던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구주의 탄생에 관한 내 간증은 더욱 커졌으며, 그다음 날 아침에 성신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슬픈 크리스마스가 되는 대신, 그해 크리스마스는 내가 경험했던 것 중 가장 값진 크리스마스 중의 하나가 되었다. ■ 로버트 호프만, 미국 워싱턴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베들레헴의 동쪽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파티가 끝날 때쯤에는
“산타를 대신하세요”
유리병이 가득 차 있기를
기도했다.

산타: 영관 간스

현대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우리 가족의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빌려온 하얀 식탁보와 눈사람 모형은 활동실이 축제 분위기가 나도록 만들었다.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산타를 대신하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빈 유리병이 놓여 있는 탁자에 시선이 멈췄다. 나는 파티가 끝날 때쯤에는 그 유리병이 가득 차 있기를 기도했다.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내 사촌의 남편이 직장을 잃은 지 일 년 반이나 지났음을 알게 되었다. 사촌 가족의 주 수입원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다섯 곳에서 신문을 돌리는 것이었다. 수입의 대부분은 대출을 갚는 것과 기타 필수 생활비에 쓰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것에 쓸 돈은 거의 없었다.

내 사촌의 가족은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나는 그들이 크리스마스 병을 지나서 식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걸어요면서, 사촌의 남편은 병에 쓰인 문구를 읽기 위해 멈췄다. 사촌의 남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은 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낡은 지갑에서 몇 달러를 꺼내더니 유리병에 집어넣었다.

감정이 폭발쳐 올라오는 동시에 신약전서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마가복음 12:41~42 참조).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셨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마가복음 12:43~44).

예수 그리스도는 과부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다. 과부는 한 렵돈만 낼 수도 있었다. 한 렵돈만 냈어도 헌금으로는 충분했겠지만, 과부의 깊은 신앙심과,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은 그녀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사촌의 남편이 “만일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주리라”(모사이야서 4:24)는 마음으로 유리병을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보인 자애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훌륭한 모범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던 다른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모로나이 7:47)라는 성구에도 나와 있듯이 나는 그의 가족의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의 가족에게 그날 밤에 무언가를 주고 싶었고, 후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이미 부자임을 보여 준 것과 같았다. ■

스테파니 에이치 울슨, 미국 유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았지?

약 20년 전에 나는 일본에서 봉사하라는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다. 큰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나는 1월에 선교 사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나는 일본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선교 사업 때 입을 옷, 여행 가방,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물품을 구입할 때 드는 초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당장 여권을 신청해야

했는데, 그 신청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특히 걱정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를 드렸다. 일본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나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이제 곧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음을 감사드렸다. 눈물을 억누르며 하나님께 여권을 만들기 위해 지금 내 수중에는 없는 75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 평온한 느낌과 함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받았다.

그날 오후에 우편함을 열었을 때 안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배달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누가 보냈는지 모르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카드에는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다. 직접 배달한 것이었다.

카드 안에는 “축하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베푸는 친절의 수혜자로 뽑히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나. 선교 사업을 잘 하고 오세요.”라고 써여 있었다.

카드 안에는 100 달러가 들어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누가 이 카드를 배달했으며, 나한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았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집에 가져다 주었는지 모른다. 그 일이 있던 이후에 나는 여러 번 어떤 분 혹은 어떤 분들이 그랬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십이사도 위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가 하신 말씀을 잘 보여 준다고 믿는다. “친구들이 보여 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과 변화를 안겨 줍니다. … 이 교회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종종 사랑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작지만, 매일 봉사하는 것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기도 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선행을 통해, 저는 주님이 몸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¹

그러한 선행은 내가 제때에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왔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등, 나를 변화시켰다. ■

한나 아이슬린, 미국 애리조나

주

1. 조셉 비 워스린, “고귀한 동반자들,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2쪽.

오 편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었다. 카드에는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다. 직접 배달한 것이었다.



선교 사업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옴

브리태니 로마넬로 카스코

선 교사 부름장을 받던 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18세에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은 이후로 선교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생각했었다.

타이완 타이중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또 봉사하고 싶어 마음이
설렘던 것이 기억 난다.

나는 매일 경전을 읽고, 선교사
준비반과 성전 준비반에 참석하고, 또
독학으로 중국어를 배우려는 노력도
했다. 무남독녀였던 나는 내 선교 사업이
내게는 물론이고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예로운 일이라고 믿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던 날, 나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침례받는
것을 보는 것부터 그간 그렇게 귀로
많이 들어 왔던 중국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마음이
설렘다. 나의 선교 사업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를 것이라는 점을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병에 걸림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자전거 타거나 아침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잘
때나 개인 학습을 할 때도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체중도 급속히 줄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물을 마실 때도 아팠다.
의사가 검사를 해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도
없었다. 내 건강이 날로 악화되자 나는
물론이고 선교부 회장이나 내 동반자도
혼란스러웠다.

그다음 달에 나는 내 자신도 놀랄
정도로 신앙을 지켜 나갔다. 실망감이
들기는 했지만,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자전거를 더 빨리 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성하더라도 중국어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의 선교 사업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를 것이라는 점을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믿었고,
몸은 약하지만 열정적인 선교사인
내게도 그분이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일요일에 동반자와 내가 구도자를 만나러
자전거를 타고 교회 집회소로 가고 있을
때, 내 몸 곳곳에서 일어나는 통증과



國語 傳教士
你好

경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집회소에 도착했을 때, 장로들에게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치유를 위해 더 자주 신권 축복을 받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타이완의 이글거리는 열기 속에서 눈을 떴는데, 내 몸을 움직여 침대 밖으로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내 선교 사업에서 가장 앞이 캄캄한 날이었다. 선교사로 더 오래 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 순간에 알았다. 선교부 회장이 나를 찾아와서 앞날에 대해 같이 상의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고,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린 끝에, 영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집으로 일찍 돌아옴

축하 풍선과 “환영” 현수막이 기다리는 가운데, 나는 휠체어에 실린 채 비행기에서 내려 몹시 걱정하시는 부모님에게 갔고, 그분들은 나를 데리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갔다. 여러 달에 걸친 검사가 시작되었지만, 의사들은 내 병의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언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계속 집에 있을 건가?” “선교사 가는 대신 결혼했어야 했는데.” “아마 선교 사업을 간 자체가 잘못이었던 거 같아.”

나는 부끄럽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인가?

정말 부지런히 봉사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좋은 선교사가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 걸까? 내 동료들이 “힘이 있는” 나의 선교사 봉사를 받아들일까?

그 후 여섯 달 동안 나는 내 간증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마음의 가책도 느꼈다. 나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점차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기는 했지만, 선교 사업 이전과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 또

비록 내 육신이 100퍼센트 다 치유될 수는 없어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려는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온전하고 또 잘 준비되어 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친한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 친구도 질병으로 인해 선교 사업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했고, 다시 선교 임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지난 여섯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날 밤에 참된 평안을 느꼈다. 영의 음성이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돌아가야 해.” 드디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나니 정말 안심이 되었다. 다음 날, 나는 감독님을 찾아갔다. 그런 다음 내가 선교 임지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간곡한 편지를 써서 교회 선교사부로 보냈다. 내 요청은 승낙되었고, 한 달 뒤에 나는 다시 선교사 이름표를 달게 되었다.

하지만 여섯 달 후에 같은 건강 문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 시간에 걸친 검사와 주사를 맞고 나서



나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런 일이 있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 선교 사업이 아주 끝이 났다는 것을 알았다. 실망과 후회가 담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나는 현명하신 선교부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다. “로마넬로 자매님, 자매님은 돌아오셔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두 번이나 충분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나는 큰 위로를 받았다. 이번에는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충실하게 남겼노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드렸다.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치유를 찾음

집으로 돌아온 지 이제 이 년이 조금 더 지났다.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고 또 내 체력과 기력도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과 같지는 않았다. 의사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내지 못했다. 내 선교 사업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귀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만났던 개종자들 하나하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합당하다고 느끼고 또 나의 짧았던 선교사 봉사가 다른 선교사들의 18~24개월 봉사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주님께서는 예기치 않게 귀환하는 아픔을 겪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얘기를 나눌 기회를 많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간증을 나누고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일찍 귀환하는 것이 비밀로 간직해야 하는 결함이 아니라 얘기해야 하는 경험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깨닫게 도와주시려고 나를 그들에게 인도하셨던 것이다.

처음에 귀환했을 때에는 내 신앙을 무시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했지만, 두 번째로 귀환했을 때에는 참되게 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다. 나는 기본적인 것, 즉 경전을 공부하고, 종교 교육원에 다니고, 교회에 참여하고, 부름을 수행하는 것에 충실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이유를 알려고 참으로 많이 기도했다. 나는 자신에 대한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원망도 멈췄다. 귀환하고서 고향에 사는 중국 혈통의 형제 자매들을 방문한 뒤로,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 모든 것에 영원한 목적이 있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나는 모사이야서 5장 15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기 것으로 인 치시어, 너희로 하늘에 인도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하나님이 되시는 이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자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갖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계속 생활해 나간다면, 축복을 영원히 받으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식으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비록 내 육신이 100퍼센트 다 치유될 수는 없어도, 주님의 대업을 위해 봉사하려는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온전하고 또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건강 문제로 일찍 집으로 오는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가?

신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교회 봉사 선교사 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상의한다.

“봉 사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숙하며 발전해 갈 수 있다.”

도널드 비 도티, 의학박사, 선교사부 건강 서비스 위원장, “선교사를 위한 건강 관리”, 리아호나, 2007년 3월호, 지역소식, 4쪽.

독일에서

증인으로서 생활함

유스티나 맥칸드레스

대 도시 하노버에서 기차를 타고 30분만 나가면 봄날에 꽃이 만발한 드넓은 밭 속에 스타트하젠이라는 독일 소도시가 차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세의 에스더 그라프는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도보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가게가 거리 곳곳에 있고, 평일 시장이 도시 광장을 가득 채운다.

스타트하젠은 또한 잘나가는 후기 성도 공동체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도시 규모는 작지만, 스타트하젠에는 큰 와드가 있는데, 독일인 10,000명당 5명 미만의 후기 성도가 있는 독일에서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에스더에게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과 이런 원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축복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곳이다.

열네 살 때, 에스더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분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거죠.”

그녀는 그런 깨달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 평의회에서 봉사하는 그녀는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들을 알아 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학교에서도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 종교에 대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지만,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웬일인지 저는 그런 일이 도리어 제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제 인생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복음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 교회를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옹호하면 믿음을
나누기가 쉽다.**

옹호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에스더의 사랑과 신뢰는 그녀가 생활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신앙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신앙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
글쓴이는 독일에 산다.



에스터에 대해 더 알아보기

독일인들은 어떤 것을 즐겨 먹습니까?

독일인들은 감자나 누들 캐서롤을 즐겨 먹습니다. 저는 야채와 소스를 곁들인 감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완두콩과 방울 양배추를 정말 좋아하죠.

취미는 무엇인가요?

음악을 듣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할 줄 압니다. 빵 굽는 것도 좋아해요. 멋진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혼자서 연구도 하죠.

독일에서 데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데이트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나하고 데이트 할래?”라고 말한다면 좀 이상할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를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죠. 그런 식으로 만나다가, 관계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일의 교회

- 회원 수 39,401명
- 스테이크 15개
- 와드 89개
- 지부 85개
- 선교부 3개
- 성전 2곳

통계

- 인구: 80,995,685명 (2014년 7월 추산)
- 박물관 6,200개
- 동물원이 400개 이상으로, 세계에서 동물원이 가장 많다.

독일에 관한 사항

수도: 베를린

언어: 독일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방법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음미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를 체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공부하고 음미하고 적용해 볼 만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구주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께서 지상에 오시고, 구유에서 나셨으며, 온전한 삶을 사신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8~14 참조)

둘째, 오늘날 우리 삶에 미치는 구주의 영향력을 음미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새로이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삶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살펴보는 절기입니다. 기억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 용서하는 절기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속죄가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음미하는 절기가 되도록 합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새로이 하고 굳건히 하는 절기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빛이나 선물이나 파티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을 영예롭게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굳건히 기다리십시오. 성탄 절기는 일반적으로 주님의 탄생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시기이지만, 저는 또한 성탄절이 미래를 고대하는 시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축복된 그날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지켜봤던 고대인들처럼 현명해집니다.

저는 이 절기 동안,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구주의 탄생 이야기에서 순수함을 발견하고,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새로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교회, 또 이웃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자 왕이시며 축복받은 구주로서 다시 지상을 거니실 축복된 그날을 굳건히 고대하기를 바랍니다.

2010년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여러 해 전, 성탄절에 우리 할머니는 모든 자녀와 손주에게 당신 대신 남에게 봉사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여동생들은 아기 모자를 뜨개질하고,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했으며, 남동생들은 홀로 사시는 어떤 자매님에게 성탄절 전구를 달아 드렸다. 나는 집안 분들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 가져갔다. 우리는 모두 할머니께 우리가 한 일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성탄절 아침에 편지를 읽으시는 할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였다. 나는 할머니가 보인신 모범에 고마움을 느꼈으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중 노릇 [했음]”(갈라디아서 5:13) 때, 사랑이 더욱 커지고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 계시는 집안 식구들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만다 에스, 미국 유타 주

인생을 바꾼, 중고품 가게에서의 선물

키아누 윌리엄스

어느 해에 나는 성탄절에 쓸 돈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새아버지인 애드리안(내 누나와 나는 그분을 위지라고 불렀다)에게 드릴 선물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누나와 내가 가진 돈을 합쳐도 선물 살 돈은 고작 2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주위에 있는 중고품 할인 상점에 가서 성탄절 선물을 사면 어떻겠냐고 엄마가 말했을 때, 나는 방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2달러로 선물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점에서 누나 엘레이나와 나는 책 더미를 찾아보다가 새 것처럼 보이는 물몬경 합본을 발견했다. 그 책을 찾았을 때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 책을 품에 안고서 통로를 지나 엄마에게 달려갔다.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는 “위지에게 줄 선물을 찾았어요!”라고 동시에 말했다. 계산대에서 엄마가 “이거 얼마지요?”라고 말했다. 계산원이 대답했다. “2달러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이다.

당시에 우리 새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그분은 물몬을 좋아하지 않았고, “물몬 책”도 믿지 않았으며, 회원들이 우리를 청남 및 청녀 활동에 데려가려고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새아버지는 심지어 장로들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했다. 그러나 와드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새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성탄절에 우리는 끝까지 새아버지의 선물을 비밀로 했다. 누나와 내가 말했다. “이것이 새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책이 새아버지를 행복하게 해 줄 거예요.” 새아버지는 여러 차례 맞춰 보려고 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새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웃었다. 우리가 새아버지에게 말했다. “아주 멋진 선물입니다! 새아버지의 삶을 바꿔 줄 선물입니다. 우리 삶도 바꿔 놓았거든요.”

엄마는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보고 새아버지가 화를 낼 것 같아 걱정했지만, 엘레이나와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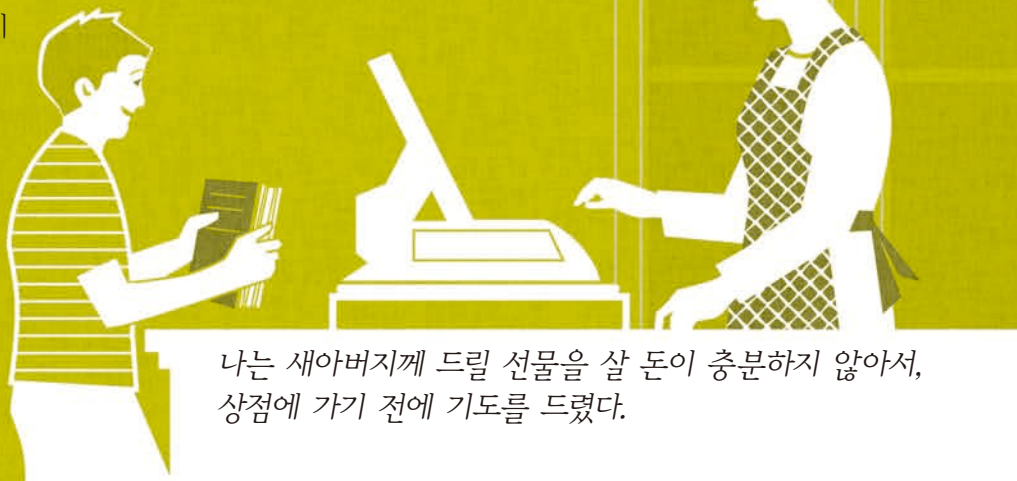
드디어 선물을 열어 보았을 때, 새아버지는 선물을 줘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했고, 그 책을 읽어 보겠노라고

말하셨다.

우리는 새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라는 선물에 대해 알아보셨으면 했다. 우리는 새아버지가 우리처럼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분 인생에 복음이 자리 잡기를 원했다.

새아버지는 물몬경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했으며, 장로들과 와드 회원들의 도움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지금은 교회 회원이시다.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을 받을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영원히 늘 함께하리라는 것을 안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에 산다.



나는 새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상점에 가기 전에 기도를 드렸다.



일요일 공과

..... 이번 달 주제:

후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

새로 온 친구

매튜 플리턴

교회 잡지

나는 새로운 와드에서 유일하게 활동적인 제사였다. 어떻게 하면 다른 제사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18세가 지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우리 가족이 이사했을 때, 나는 새 와드에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사 오고 나서 이 주일도 안 되었을 때, 거의 모든 제사들이 장로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제사 정원회에서 제1보조로 부름을 받았다.

내게 이 부름을 주시면서 감독님께서 명부에는 제사들 이름이 많이 올라 있지만 거의 모두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다.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격려하려면 할 일이 참 많았다.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 오라고 권유합시다.”

오직 한 명의 다른 제사가 교회에 왔는데, 이름이 라이언이었고 매달 두 번 정도 교회에 왔다. 나는 정원회의 저활동 회원들 집을 찾아가서 우리 활동에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긴장이 됐고, 또 교회로 초대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내게 화를 낼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할 선교 사업을 연습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불편함을 참고서 다른 제사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그들 집에 잠시 들르기 시작했다. 나는 노년의 모임에, 활동에, 교회에 그들을 초대했다.

놀라웠던 것은 실제로 내 초대를 받아들여 교회에 온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네 명의 제사가 모였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회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초대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뿐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 즉 내가 전에 그랬듯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단지 낯설었을 뿐이었다.

어떤 활동은 다른 활동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배구를 할 때는 다들 나왔지만, 어떤 활동에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었다.

그해 청소년 대회에서 몇몇 청남들이 일어서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보람을 더 느꼈다. 내가 그들 인생에 영향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라이언이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내가 이사 오고 나서 약 여섯 달 뒤에 라이언과 나는 모두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친 뒤에 대학을 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기에 선교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했다. 라이언은 이미 직장을 잡았고, 그는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일이 끝나고 우리는 자주 함께 어울렸다.

한번은 우리가 거의 밤을 새우면서 엘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라이언은 그때 몰몬경을 처음 읽었다고 했다.



드롭아웃 프로그램: 라이언

많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활기가 넘쳤다. 라이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는 것도 멋진 일이었다. 그는 과거의 습관을 버렸고, 더 나은 습관을 들였으며, 몇몇 친구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같은 표준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나는 몇 년 전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라이언은 선교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는 내 선교 사업과, 봉사하고 싶은 내 열망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를 격려하고 복음 질문에 대해 답해 주면서,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내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더 생겼다. 라이언은 선교 사업을 나가도 되는 나이였지만 결정을 망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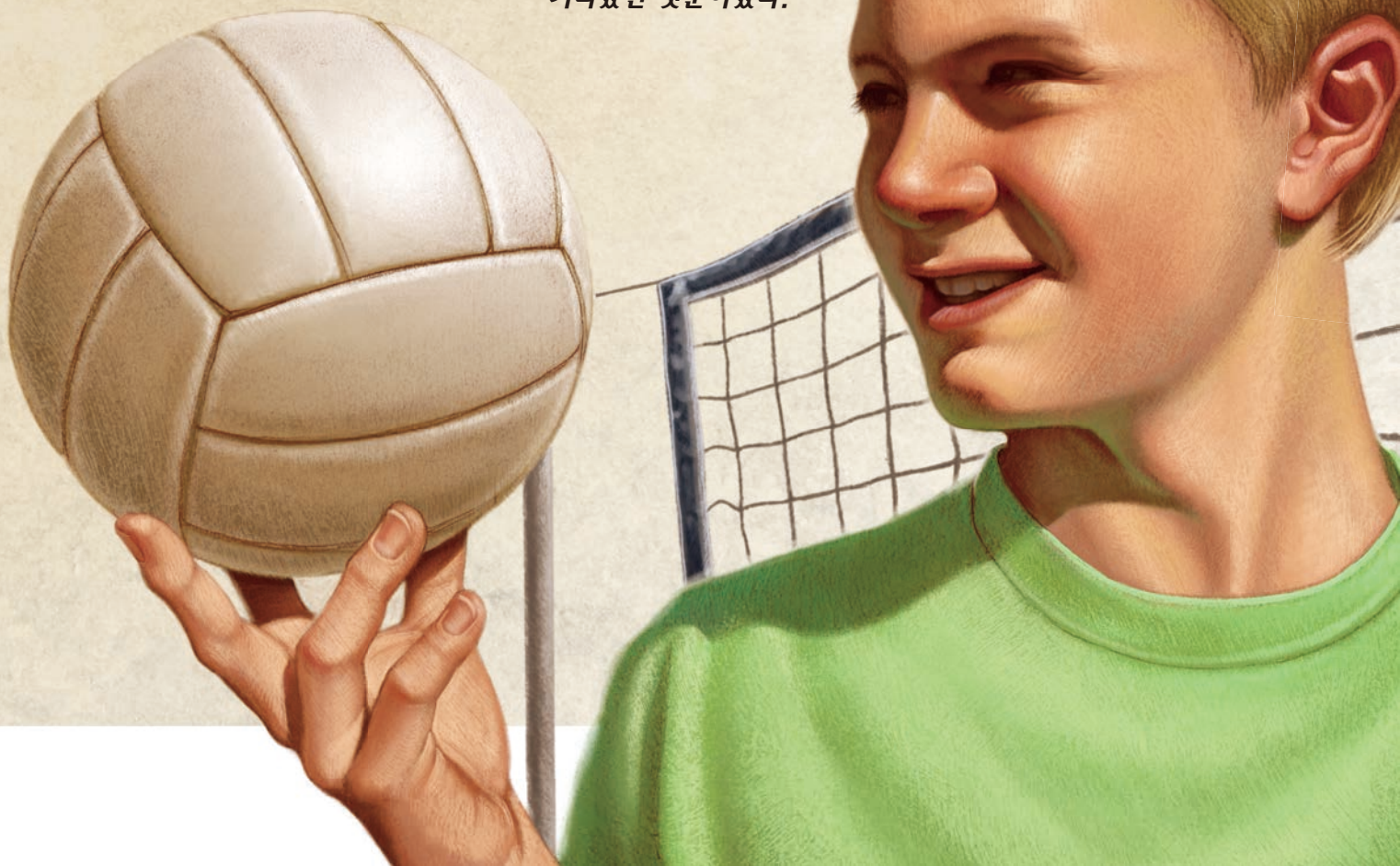
라이언이 말했다. “그때 교회에 대해 좋은 느낌이 있었지만, 내 간증이 충분히 강한지 자신이 없었어. 가고는 싶었지만, 가족을 떠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

드디어 내가 선교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가 되었다. 내가 그 사실을 라이언에게 말했을 때, 그가 자기도 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 우리의 선교사 부름장은 같은 날 도착했다. 라이언은 내가 프랑스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한 달 먼저 캐나다에서 봉사하기 위해 떠났다.

이 년 뒤에 귀환했을 때, 나는 내가

함께했던 모든 제사들을 찾아보았다. 내가 떠난 직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만둔 제사도 있어서 서글픈 마음도 들었지만, 라이언을 다시 보니 정말 기뻐다. 그는 명예롭게 선교사로 봉사했고,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처럼 그가 아직도 주 안에서 나의 형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 더 기뻐다.(엘마서 17:2 참조) ■

**그들은 교회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초대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뿐이었다.**



그들은 **조셉**을 알고 있었다

후 복의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조셉을 만났거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조셉에 관해 말했던 내용을 통해 조셉에 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조셉을 만났었던 비회원들

조셉을 만났었던 많은 비회원들은 조셉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하버드 졸업생이였으며 보스턴 시장 예정자였던 조시아 쿨시는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조셉이 “설명이 필요한 경이로운 사람”,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 “풍채가 당당하며 ...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셉 스미스가 후세에 “국가의 운명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교과서에서 평가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¹

조셉을 만난 개종자들

조셉을 처음으로 만난 개종자들 역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영국에서 나부에 온 지 오 일이 지난 후에 윌리엄 클레이튼은 집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 “지난밤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조셉 형제와 함께했으며, 우리는 그가 하는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다정다감한 사람이며 우리 중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매우 사랑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²

나부에 도착했을 때 14세였던 메리 앨리스 캐논 램버트는 “우리가 탄 배가 ... 나부에 닿았을 때,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온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을 때 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으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간증을 얻었습니다.”³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의 43장과 47장에서 조셉 스미스에 관해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온 설명은 여러분이 선지자 조셉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셉을 잘 알았던 사람들

교회 초기 회원이었던 존 엠 번히셀은 의사였다. 그는 스미스의 집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물렀었다. 그는 조셉 스미스가 “강한 정신력”을 지녔으며, 넘치는 활력과,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며, “냉철한 판단력”과 “넓은 견해”,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했다. “그는 친절하고 자상하며, 후덕하고 인자하며, 사교적이고 유쾌하며, 면학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두려움 없고, 독립심이 강하고, 그 누구보다도 꾸밈없는 사람입니다.”⁴

조셉의 서기 중 한 사람이었던 하워드 코레이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 그를 찾아온 의사, 변호사, 목사,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주하는 선지자의 능력에 매우 감명받았다. 그는 조셉이 “항상 모든 상황에 똑같이 대처”했다고 말했다. “나는 조셉이 저명한 과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결코 긴장하지 않는 모습과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지체 없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⁵

후에 손수레 부대 중 하나를 솔트레이크밸리로 이끈 다니엘 디 맥아더는 “저의 간증은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면 불수록 저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 보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⁶



조셉을 알았던 선지자들

교회의 세 번째 회장이 된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여러분이 조셉에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즉각 여러분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키와 생김새를 비롯해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그들에 관해 말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⁷

선지자의 조카였던 조셉 에프 스미스는 교회의 여섯 번째 선지자가 되었다. 그는 조셉 스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가장 숭고하고 순수한 인간성으로 차고 넘쳤으며, 그것은 종종 단순한 오락, 이룰때면 공놀이, 형제들과 하는 씨름과 간단한 몸싸움 놀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 그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즐거움과 사랑으로 가득했으며, 인간을 위대하고 선하게 해 주는 모든 고귀한 속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단순하고 순수하[였으며] ...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특성이었습니다.”⁸ ■

주

1. Josiah Quincy, “Joseph Smith at Nauvoo,” *Figures of the Past from the Leaves of Old Journals*, 3rd ed. (1883), 376–400; 또한 Richard L. Bushman, “The Character of Joseph Smith,” *BYU Studies*, vol. 42, no. 2 (2003), 29–30 참조.
2. Bushman, “The Character of Joseph Smith,” 33.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6쪽.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98~499쪽.
5. Bushman, “The Character of Joseph Smith,” 29.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96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03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99쪽.



성전 결혼을 하면 나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교회에 참석하면 나는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면 나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정직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 부름에서 봉사하면 나는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선교 사업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내는 십일조와 금식 헌금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성전 결혼은 어떻게 내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봉사할 기회를 줄 것인가?

내 부름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내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을 보여 주는가?

내가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나는 선교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는 사람인가?

잠 시 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 교회 공과 시간에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에 좋은 시기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과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게 좀 더 동기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위의 질문은 여러분이 안쪽을 향할 것인지(자신에 대해 생각함) 아니면 바깥쪽을 향할 것인지(다른 사람을 생각함)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을 보려는 경향이 보이는 경우, 위를 바라보도록 노력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나 저만의 사업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8쪽) ■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재능을 발전시킵시다.

여러분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회장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 일 부름을 받았을 때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에녹, 그리고 조셉 스미스는 모두 어렸고, 선지자 부름을 받았을 때 부족하다고 느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왕국을 키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대의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 내셨듯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원들의 이름을 익혀 보세요.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금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밖의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고,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반겨 주고, 학교나 교회에서 그들 옆에 앉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심과 사랑이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도움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보좌들과 성인 고문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그런 뒤 굳건히 일어서서 요청받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겨 두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값을 따질 수 없는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교회의 여성들에게”,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14쪽)

친구가 되어 주세요

반 회장으로서 저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사랑받고 있으며 소외당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을 지지해 주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보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올바른 모범을 보이고 청년 가치관대로 살려고 애쓰되, 너무 완벽해지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레베카 엔, 16세, 미국 뉴햄프셔



기꺼이 봉사하기

저도 장미반 반장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느꼈습니다. 아직도

집전을 위해 감독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느꼈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부름이 감독님이 주시는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부름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니콜 피, 16세, 필리핀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감정들을 없애고 용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 그들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개인 발전 기록부가 여러분이 부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메리 비, 16세, 미국 워싱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갖추고자 하는 자질을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릴 때 영이 함께하도록 간구합니다. 청년의 필요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첫 단계는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바나 피, 15세, 미국 텍사스

성전에 참석하세요

제가 새로 집사 정원회 회장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영성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통 매주 일요일에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성전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는 남성의 침례 및 확인을 위한 이름을 성전으로 가능한 한 자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성전에 다니면서 저는 조금 더 영적으로 느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속한 집사 정원회를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쉬 비, 13세, 미국 유타

영감에 따라 행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름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신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2:5 참조)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모로나이서 10:5)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영감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루시 디, 17세, 프랑스



교화하는 활동을 계획함

회장단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청년들의 필요 사항과 흥미를 충족시킬,

교화하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반에 있는 청년 중 활동에 나오지 않은 청년이 있었다면 함께하고 싶었다고 연락하세요. 나에게 도움을 준 경전 구절 중 하나는 모사이야서 18장 9절입니다.

케런 피, 16세, 멕시코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며, 그분의 교회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부름을 주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며, ... 여러분을 그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추천한 사람은 단지 그가 여러분을 좋아하거나 그 일을 해낼 누군가가 필요해서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를 드렸으며, 여러분이 그 부름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은 구주를 대표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는 음성은 그분의 음성과 동일한 것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여러분의 손길은 주님의 손길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제일회장단 제1보좌,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6쪽.

다음 질문

“사촌을 교회에 초대하고 싶지만, 사촌의 부모님이 화를 낼까 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내 간증을 사촌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6년 1월 15일 금요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실 때, 다음 사항과 동의서도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외르크
클레빈가트 장로
칠십인

젊은 개종자

로서 배운 교훈

교회에서 새내기였을 때, 저는 와드의 다른 청소년에게서 훌륭한 희생의 본보기를 보았습니다. 또 그 시점 이후로 훌륭한 교훈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열일곱 살 때 교회에 들어왔는데, 고향 독일의 군부대에 주재하는 미국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와드가 없었기에, 저는 미국 사람들과 함께 기지 내에서 여러 종파가 쓰는 소규모 군 예배당에 참석했습니다.

침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일요일 모임 끝 무렵에 감독님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리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은 저도

자리에 함께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해당 가족들과 감독님, 그리고 저만 예배당에 남게 되자, 감독님은 제가 다음 학기 세미나리 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지 내의 다른 모든 청소년이 다니는 미국 학교보다 한 시간 일찍 시작하는 독일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덕을 달려 내려와 늦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교에 미리 도착하려면, 그들은 세미나리 반을 전에 모이던 시간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6시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 후 감독님은 제가 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희생을 흔쾌히 치르는 데 동의하느냐고 모든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곧이어 부모와 학생들은 모두 손을 들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무척 인상 깊은 순간이었으며, 희생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감독님은 제가 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세미나리를 한 시간 일찍 시작하
는데 동의하느냐고 모든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곧이어 부모와 학생들은
모두 손을 들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않았더라면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저 때문에

하루나 한 주뿐 아니라 학기 내내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편의를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 년 동안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는) 세미나리가 교회에서의 제 초창기 생활에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깨달으며, 그들의 희생을 아직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리가 없었다면 저는 일요일 외에는 교회와 많이 접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일 하는 세미나리는 훌륭한 선교 사업 준비였습니다. 또 수양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음은 물론, 복음과 경전 지식을 풍성히 얻는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리와 성약 성구 익히기 구절을 모두 제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도시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감

학교를 마친 후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저는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군 복무 중 저는 오늘날까지 지켜 온,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사물함에 있는 것들, 각종 사진과 대화, 군인들이 밤에 보는 영화 등, 군대 내의 환경은 언제나 매우 영적인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충실하게 남고 싶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고,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걸어 다닐 때, 숲 속의 언덕을 오르내릴 때, 참호에 누워 있을 때, 기동 훈련을 할 때, 저는 어디에 있든지 가능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관계를 맺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고 충실하게 남기 위해 몇 분, 아니 어떤 때는 몇 시간 동안 그분과 교감하거나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대개는 단지 감사만 드렸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차를 몰고 갈 때,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어디론가 갈 때는 경전에 나오듯이(예를 들면 니파이후서 32:9 참조)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습관은 이른 나이에 키워야 할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호의의 표시로 아침저녁으로 잠시 무릎을 꿇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솔직하고 깊이 있게 지속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이 그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세상의 온갖 유혹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제3니파이 18:15, 18 참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때나 자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음악을 듣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쓰는 시간을 줄이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와 복음 공부를 계속하면, “죄 사함을 간직하[는]”(모사이야서 4:11~12 참조) 데 도움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러분에게 매일 매시간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권능을 이용하려면, 또 일요일만이 아니라 심각한 무언가를 고백하러 감독에게 갈 때만이 아닌, 말 그대로 어느 때든 정결하게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정결하고 합당해지며, 영을 느끼고, 영적인 면에서 위아래로 오르내리기를 거둬들이기보다는 언제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속죄에 의지하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님께 가서 심각한 죄를 알리는 것만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습지만, 회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1) 경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치는 성구를 공부하고, 그런 다음 (2) 매일, 매 순간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더 낮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아시게 하십시오.

구주의 속죄와 사랑과 칭찬을 누릴 기회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지만, 결코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듯이,

바울이 말했듯이 “자신을 시험하십시오.”(고린도후서 13:5) 그러나 여러분이 속죄와 속죄에 의지하는 법을 일단 배우면, 여러분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항상 정결하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신뢰를 지닐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합하십시오. 그러면 더 나아가 자긍심과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개종자일 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으며, 그것은 제 인생에 크나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연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머물도록 힘쓰면, 그분은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여러분에게 매일 매시간 효력을 발휘한다.

사탄이 여러분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낫다고 느끼게 하여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발전을 계속하며 날마다, 어느 때든 계명을 지키고 속죄를 적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



나의 ‘패밀리 트리’에 대한 개인 발전 기록부

오빠와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적어도 내가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라이사 마르콘데스

나는 계보 작성을 하는 것을 늘 미뤘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하려는 소망 때문에 내 자신이 더 나은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영감 어린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 나는 개인 발전 기록부 작성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목표와 선행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계보를 작성해야 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시작한 지 겨우 세 시간밖에 안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이 나를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작하자마자 나는 내 고조 할아버지께서 브라질 아마조나스 주의 주지사였다는 것이 기억났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온라인 검색 엔진에 입력해 보았고, 아주 놀랍게도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에 대한 위키디피아 페이지를 발견했다. 나는 즉시 내가 지닌 재능과 은사를 그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찾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

페이지에 달린 링크를 찾아보면서 “가계도”라고 적혀 있는 한 링크에 주목했다. 링크를 클릭했을 때, 존재조차도 몰랐던 내 가족의 가계도를 발견했다. 그러나 내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로살리나 메이레레스라는 이름의 증조모로, 그분은 유타에 살았던 것이 분명했다.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다. 나는 오빠와 나만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했었다. 우리 가족 중에 정말로 교회 회원이 또 있을까? 그녀의 이름을 클릭했을 때, 나는 페이스북 링크를 보았고, 그분에게 연락을 했다. 이틀 뒤에 나는 그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친척이고 그분도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나는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그런 커다란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크나큰 감사를 드렸다.

나는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 검색을 계속 해 나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덕분에 내가 성전에 가져갈 수 있는 가족들 이름을 많이 발견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충실한, 살아 있는 가족을 찾게 도와주셨다. 이 모든 것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와 가족 역사 사업, 그리고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나의 소망 덕분이었다. ■

글쓴이는 브라질 마나우스에 산다.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철십인

스펜서와 경전

“경전을 읽기 좋아하니 난 항상 읽지요 내 마음속에 경전 참됨을 증거하는 간증 자라네”(어린이 노래책, 66쪽)

아 내와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가족과 함께 날마다 경전을 읽으라고 교회 회원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따르고 싶었기에 부부가 함께 경전을 읽고 나중에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우리 집에는 막내인 스펜서를 포함해 자녀가 다섯으로 늘었습니다.

스펜서가 여섯 살이던 어느 날, 아내와 저는 보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는 스펜서 곁에 앉아 우리가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스펜서는 잠자기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잠을 잘 못 잤느냐고 묻자, 스펜서는 생각에 잠기더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밤마다 하는, 가족 물문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스펜서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거야!”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밤에 잘 자지 못한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왜 잘 자지 못했던 거니?”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집에 안 계시는 동안 우리는 밤에 경전을 읽지 않았어요. 전 경전을 읽을 때 오는 느낌이 좋아요.”

스펜서는 밤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과 화평, 그리고 성신의 인도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경전을 읽을 때, 경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

저는 신권 권능과 권세에 대해 아버지에게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충실한 어머니와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 회원이 아니셨지만, 가족과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와드의 소프트볼 팀을 지도했고, 스카우트 활동도 도와주셨습니다.

소년 시절에 저는 아버지께 언제 침례를 받으실 거냐고 매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데이비드야, 내가 침례를 받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느낄 때 교회에 들어올 거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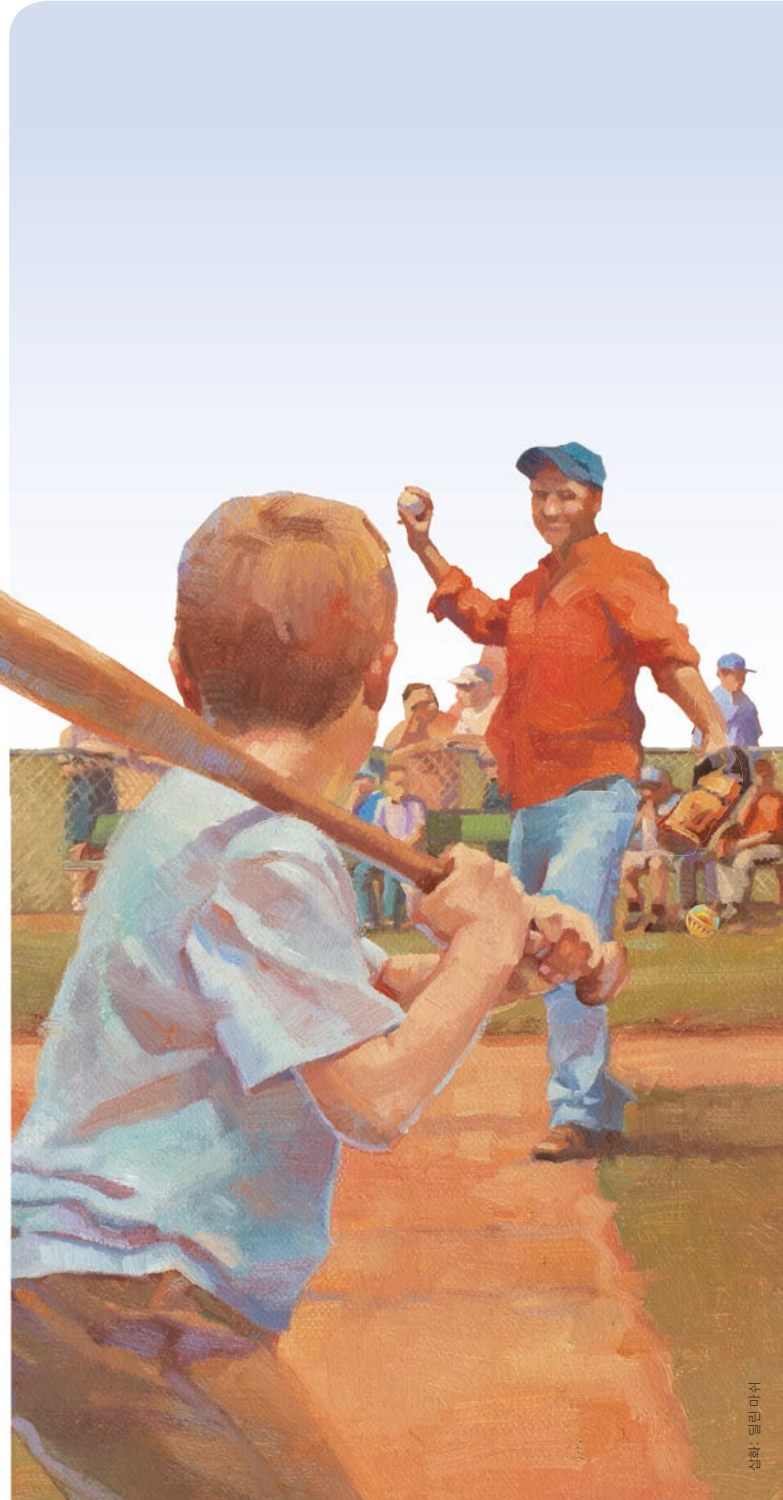
어느 일요일, 제가 언제 침례를 받으실 거냐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데이비드야, 너희 교회에서는 고대에 신권이 지상에서 거두어졌고, 하늘 천사들이 이를 회복해 주었다고 가르치지. 너희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째서 너희 교회의 그 많은 남성들은 자신들의 신권 의무를 수행하는 면에서 내가 다니는 다른 교회의 남성들과 별다른 게 없는 것일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드릴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권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신권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기에 충실하고 합당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좋지 않은 모범을 보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권을 지닌 우리 모두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고결하고 유덕하며 좋은 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버지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멋진 경험 중 하나는 아버지께서 신권 권세와 권능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순간이었습니다. ■



물몬경,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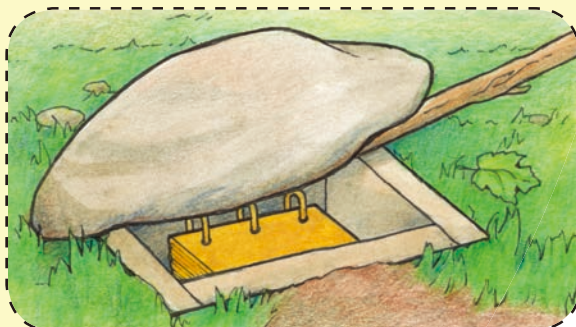
조셉 스미스—역사 1:29~35, 42~54, 59~60



조셉 스미스



모로나이 천사



경전 인물 그림을 잘라 골판지, 두꺼운 종이, 작은 종이 봉투 또는 나무 막대에 붙이세요. 그림에 해당하는 경전 구절 목록을 붙여 종이 봉투 또는 가방에 보관하세요.

코르도바 가족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이브

마리시엘로와 나에게는 선물이 하나밖에 없었다.
어떻게 나눈단 말인가?



허니 탈리아 카벨 로스노
실화에 근거함.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크 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집의
자그마한 트리 밑에는 선물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두 살배기
여동생 마리시엘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돈이 빠듯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리아호나에서 아무런
선물 없이 보내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주셨습니다. 엄마가
읽는 동안 저는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선물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듯싶었습니다. 그런 후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통 하는 게임을 하는 대신
와드의 어떤 가족에게 선물을 보내면
어떻겠나?”

“하지만 무엇을 줄 수 있죠?” 하고 제가
묻자,

“우리에겐 나눌 게 조금 있지
않니?”라고 엄마가 답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두 선물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걸린 예수님
그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가진 것을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어느 가정을 방문할지
기도했습니다. 그해에는 우리가 아는
가족 중에 가진 게 거의 없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코르도바 가족을 방문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집에는 세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가게에 가서 빵네통(명절 때
먹는 빵)과 구운 닭, 그리고 작은 선물 세



개를 샀습니다. 그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는 신이 났습니다. 엄마는 가지고
있던 페루 돈 30솔(약 11,000원)가량을 다
쓰셨습니다.

장보기를 마친 후, 우리는 차를
타고 코르도바 가족에게 갔습니다.
제가 마리시엘로와 손을 잡고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코르도바 자매님이
보고 달려 나와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다.
“정말 뜻밖이에요! 들어와요! 앉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자매님은 엄마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롤란도와 딸아이들이
너를 보면 무척 좋아할 거야.”

그 집은 바닥을 흙으로 만들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촛불만 있었습니다.
코르도바 가족을 보니 조금 슬퍼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가족을 더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흙바닥이나
촛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코르도바 자매님과
함께 있어서 마냥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성탄절 인사를 하러 들렀죠. 펠리스
나비다(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라서 기뻐요.” 엄마는 음식과 선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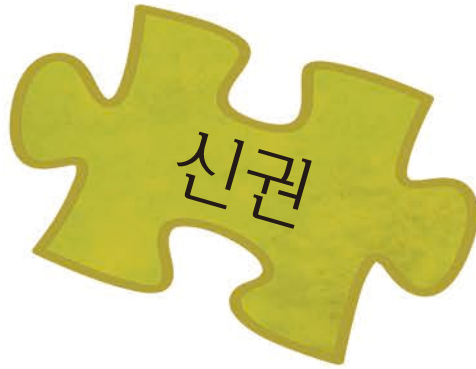
코르도바 자매님께 드렸습니다. 자매님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롤란도와 마들린, 라켈이 다른 방에서
쪼르르 달려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마리시엘로는 제 곁에 온 아이들을 보더니
미소를 띠었습니다. 또 롤란도가 재미있는
표정을 해 보이자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곧이어 모든 사람이 떠들어대고, 웃기는
얘기를 하며 놀았다.

“이러는 게 우리끼리만 게임을 하며
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온 것이
기뻐했습니다. 나눌 것이 별로 없다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었습니다. 바닥이 흙이라서
문제 될 것도 없었습니다. 성탄절은 무엇을
가졌는가에 관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에 관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채비를 하자
코르도바 자매님은 우리를 다시
안으시더니, “고마워서 어찌지.”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서서
코르도바 자매님의 볼에 입맞춤한 후,
“펠리스 나비다.”라고 인사했습니다. ■
글쓴이는 페루에 산다.

회복 퍼즐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이디 폴먼
실화에 근거함

“이는 내가 네게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부여하였음이니, 이로써 나는 만물을
회복하며”(교리와 성약 132:45).

애 나는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선생님이 주신 작은 종이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있잖아! 저 다음 주
일요일에 초등학교에서 말씀해요.”

“잘 됐구나.”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주제는?”

“회복에 대해 말씀해야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있길 바라시는 모든 것을 되돌리거나
되찾아 주셨다는 것을 말한단다.”라고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과 신권,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되돌려
주셨지. 회복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없었을 거야!”

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처럼 설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애,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와 봐.”

애나는 엄마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와 애나는 어젯밤에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조각들이 조그만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완성된 퍼즐이라고 생각해
봐.” 엄마는 퍼즐 한 조각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림의 여러 조각이 서로
다른 시기에 지상에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돌아가시자, 많은
복음 진리가 사라지거나 바뀌었던단다.
그러한 진리의 조각들은 되돌아와야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애나가
흩어진 조각들을 섞으며 물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하나님은 어린
시골 소년을 부르셔서 그 조각들을
되돌리거나 되찾으시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처럼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단다. 그 소년이 누구였다고

생각하니?”

“조셉 스미스요!” 애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애나는 엄마와 함께 조셉
스미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되돌려 주신 다른 복음 조각들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주 동안 애나는 말씀을 적고
연습했습니다. 애나는 용감하게
초등학교에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일요일에 말씀할 순서가 되자 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한 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퍼즐이 놓인 판을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복음의 중요한 조각들이
지상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돌아가시자 몇몇
조각을 잃게 되었죠.” 애나는 몇 조각을
퍼즐에서 떼어 내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성스러운 경전과 잃어버렸던 교리와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엘 앤더슨 장로, “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8쪽.

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잃어버린 복음 조각들을 되돌려 주셨어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애나는 조각 하나를 집어 초등학교 반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조각 뒤에는 “신권 권능”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애나는 나머지 조각들도

내보였습니다. 애나는 각 조각을 퍼즐의 제자리에 놓기 전에 조각 뒤에 있는 단어를 읽어 주었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 … 십이사도 … 영원한 가족을 위한 성전 사업 … 침수로써의 침례 …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애나는 완성된 퍼즐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조각들을 모두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과, 또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저는 회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에린 샌더슨

성 탄절에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또
다른 멋진 날, 즉 예수님께서 지상에
돌아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그런 일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세상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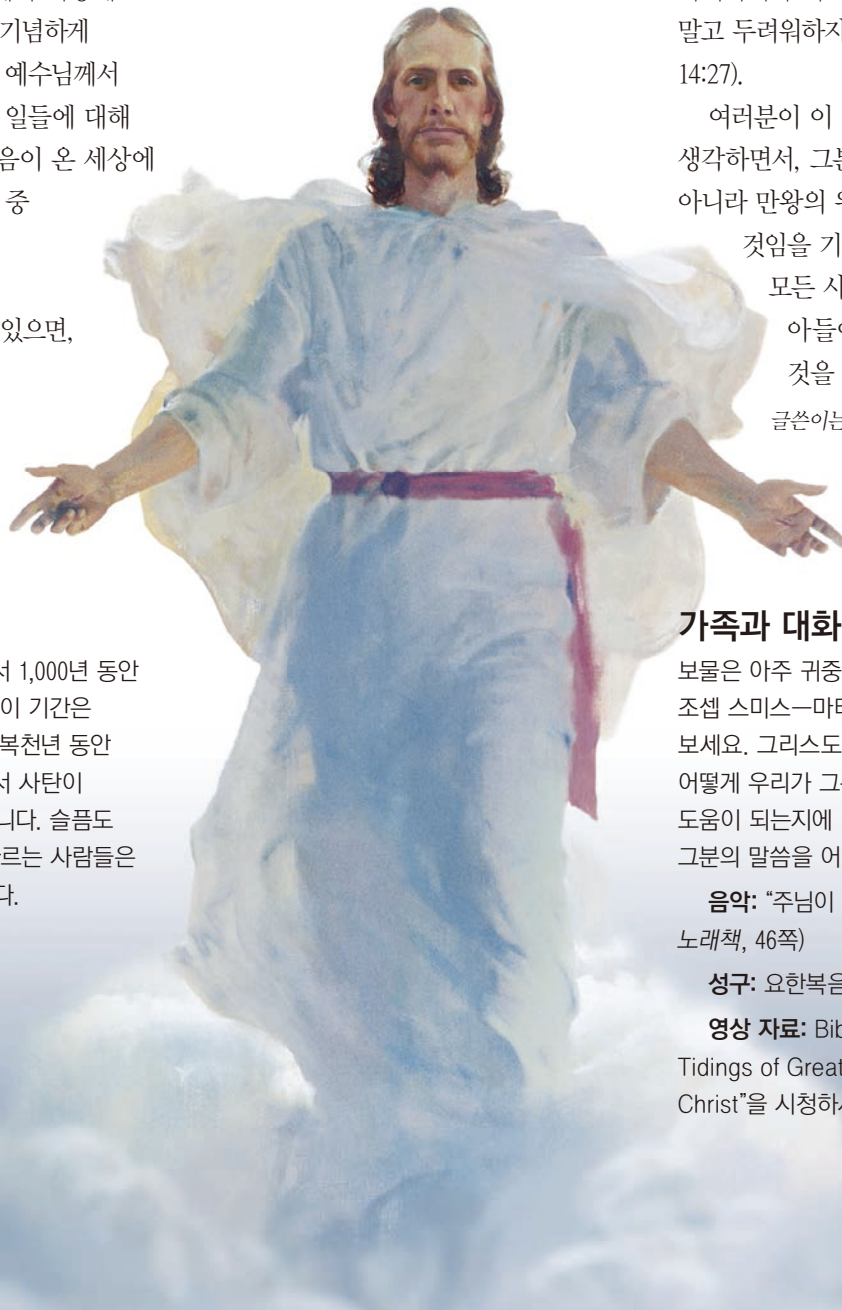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대해
생각하면서, 그분이 언젠가는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모든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더 알아보기

예수님은 지상에 돌아오셔서 1,000년 동안
지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
복천년이라 불릴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
사람들은 참으로 의로워져서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슬픔도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보물은 아주 귀중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마태복음 1장 36~37절을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음악: “주님이 다시 오실 때”(어린이
노래책, 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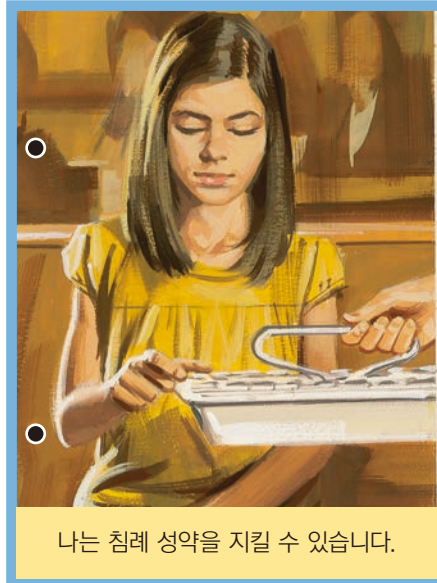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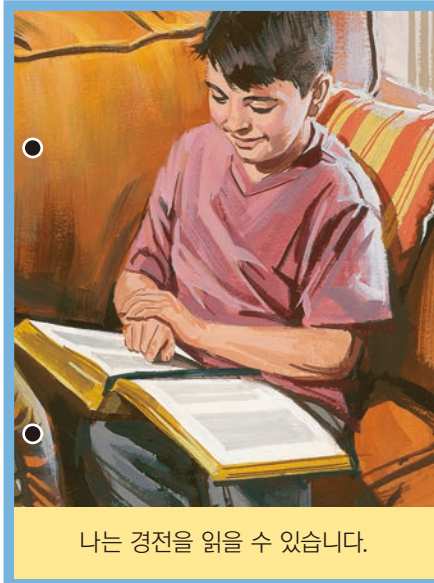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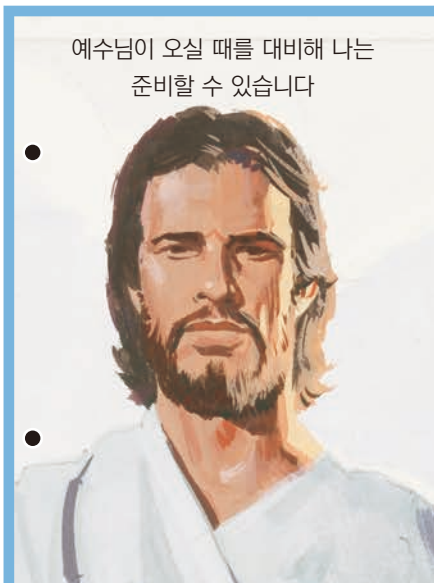
성구: 요한복음 14:27

영상 자료: Biblevideos.org로 가서 “Glad
Tidings of Great Joy: The Birth of Jesus
Christ”을 시청하세요.

나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 여러분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소책자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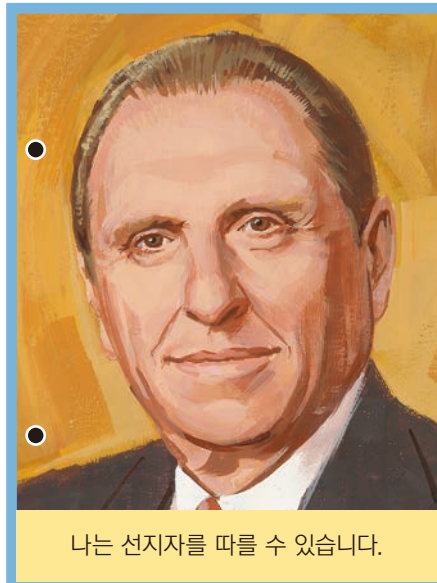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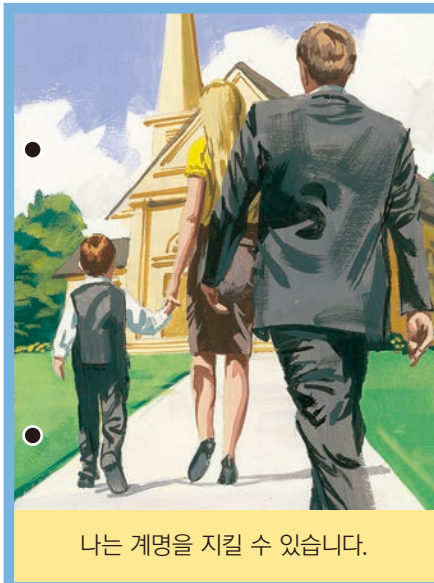
카드를 오려 쌓아 놓습니다. 두 구멍 속으로 줄로 꿰서 묶습니다.



경전 공부 도움말

다음은 여러분이 경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1. 경전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경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2. 여러분이 읽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적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먼 옛날에 마리아라는 처녀와 요셉이라는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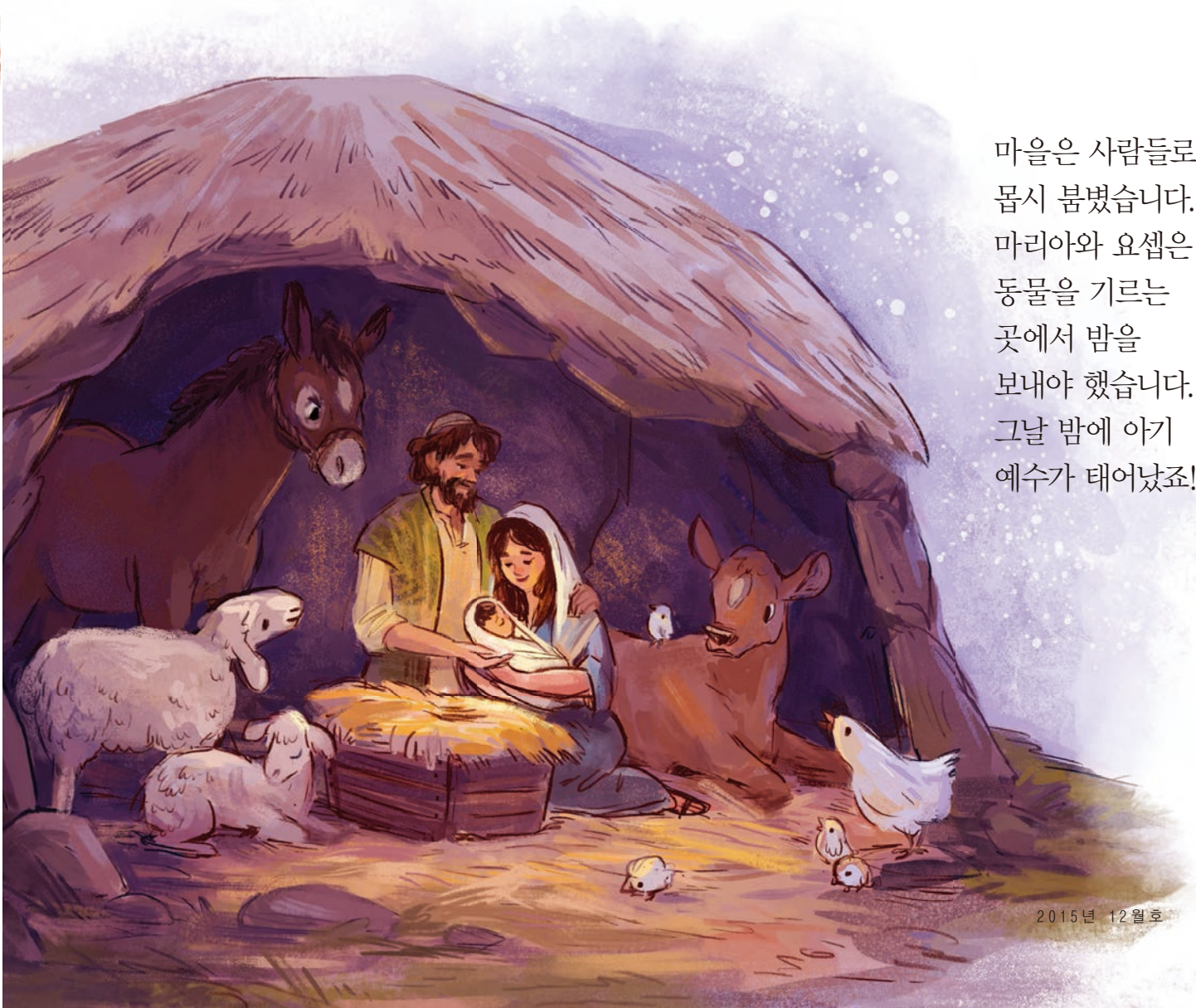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구주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세금을 내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마을은 사람들로
몹시 붐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죠!

새 별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 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목자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려고 떠났습니다.



멀리서 박사들이 새로운 별을 보았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이 구주가 나신 것을 알려 주는 표적임을 알았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고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천사가 요셉을 방문했습니다. 천사는 나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애굽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괜찮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라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구주가 되는 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따랐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림을 가리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할 때, **마리아와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목자들과 박사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실제 이야기를 알려 줄 때, **천사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

경전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8~25절; 2장; 누가복음 1장 26~38절; 2장 1~2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1907~1995)
제14대 교회 회장

참된 성탄절

참된 성탄절은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의 명백한 불신앙과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에 관해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라디아서 4:18~19). 달리 말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형상을” 이를 때까지 고통과 근심을 감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여러 글에서 반복해 사용했던 표현처럼,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형상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일반적인 진리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항상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룹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권고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를 속박하여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이 평강의 왕은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며, 그 평화는 각 사람이 그런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된 성탄절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생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력을 주는 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옵니다.

성탄 절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제임스 월링포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루, 한 절기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상태이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풍요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
속에서 은혜가 넘친다면,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다면,
형제가 뺄 한 조각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을 대신 내어 준다면, 매일
새벽을 기회로 시작하고, 작더라도
성취로 하루를 닫는다면,
그때에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요, 성탄절이 항상 가까이
있으리라.

[Charles L. Wallis 편, Words of Life(1966년), 33쪽]

여러분이 성탄절의 참된 정신을 발견하고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다면, 이러한 권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 절기라는 이 흥겨운 시기를 바빠 보내는 동안,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혼자서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든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온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열심히 노력할 때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직접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

“참된 성탄절”, 리아호나, 2005년 12월호, 12~15쪽에서 발췌함.

통찰



브라질 나타우의 회원들

우리는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안식일은 가족간의 유대를 공고히 할 훌륭한 기회를 줍니다. ...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됩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은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 특히 아픈 사람들 또는 외롭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십시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30, 131쪽.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선교 사업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옴

집에 돌아온 후에 신앙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대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44쪽

청소년

젊은 개종자로서 배운 교훈

17세에 교회에 들어오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의 상황을 상상해
보라. 칠십인인 클레빈 가트 장로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읽어 보자!



60쪽

어린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린 여섯
페이지의 그림을 감상해 보세요!



74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